한국 평신도 회년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요한 15, 16)

2017 평신도 주일 – 2018 평신도 주일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8년 여름 계간 60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18년 여름

평신도

• **인사** 회장 인사말

• **특집**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평신도가 뛴다

• **나 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나의 신앙 선조

• **이야기**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5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주보성인과 나

• **시** 시가 있는 풍경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소식**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18년 여름
계간 60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회장 인사말 / 손병선

특집
04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 서상덕
09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 / 김문태

만남
13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나권일
19 평신도가 뛴다 / 김주완

나눔
23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 이귀련
26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 송란희
29 나의 신앙 선조 / 유수일

이야기
32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5 / 박정일
36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 김광현
39 주보성인과 나 / 한일문

시
41 시가 있는 풍경 / 김용해

배움
42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김유철
44 평신도 양서 / 김선동

소식
46 교구평협 · 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편집위원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배봉한 세례자 요한, 서상덕 스테파노, 송란희 가밀라, 이귀련 체칠리아, 이창훈 알폰소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평양교구 사무국 제공 (1933년 9월 24일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진남포 성당 축성식 후 2대 평양교구장 모리스 목 몬시뇰과 신자들)
디자인 · 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

회장 인사말

한반도 평화의 새 빛과 새로운 여정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한국 · 서울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회장

+ 찬미 예수님!

평신도 희년의 뜻깊은 해를 맞은 한국교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반도 평화 염원을 담은 메시지를 안고 지난 5월 27일 알프레드 슈에레브 주한 교황대사(대주교)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가운데 한반도에는 평화의 새 빛이 드리워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탈냉전시대 외교사의 한 전환점이 될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기에 파격과 반전의 드라마틱한 상황 전개 속에서 국민적 기대가 몹시 큰 게 사실입니다. 평화를 향한 새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남북과 북미 간,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줄 압니다. 앞으로 설득과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장애물도 있을 줄 압니다.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섣부른 타협보다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민족분단 73년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 하느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기적과 같은 기회가 잘 살려지기를 희망하면서 기도합니다. 23년에 걸친 우리의 쉼 없는 기도와 내 마음의 북녘본당 갖기 운동을 펼쳐 온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을 잘 담아내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 평화의 초석으로 만드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가 항구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음화 시도와 교회 내적 쇄신을

주교회의에서 발표한 한국천주교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신자 복음화율 11%대 첫 진입이라는 외적 모습과는 달리 신자들의 성사생활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사제 · 수도자 성소 부족 현상과 신자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자 수(581만3770명) 증가의 둔화와 신앙생활의 내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주일미사 참여율이 19.4%로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통계가 발표되면서 여러 교회 언론 매체에서도 신자들의 내면과 질적인 면에서 위기의 현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목자와 교회 내 구성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음화 시도와 교회 내적 쇄신, 군 사목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신앙의 대물림에 대한 연구도 절실해 보입니다.

초기 선조들의 믿음 생활과 순교 영성의 바탕 위에 신앙체험의 기회나 영성사목의 확대를 도모해야겠습니다. 또한 국경 없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국내는 물론 해외선교를 통한 디지털 영토의 무한 확장을 위해서도 굿뉴스, 방송(TV), SNS 활동 등 선교 홍보 매체에 대한 우선적 투자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됩니다. 교구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조직의 효율성, 연계성, 유연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목과 통합사목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대전교구에서 벌이는 시노드를 통한 미래 사목의 새로운 이정표를 담아내기 위한 작업들은 바람직한 접근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수원교구에서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단행된 대리구장의 사목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교구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 시도 또한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들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성공 사례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한국청년축제인 KYD에 사랑의 행동으로, 희망을 심는 마음으로 동참을

오는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제4회 한국청년대회(KYD)가 '나다, 두려워 마라.'(요한 6,20)를 주제로 서울에서 열리게 됩니다. KYD(KOREA YOUTH DAY)는 한국의 독자적인 청년대회라기 보다는, 198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반포하신 '세계 젊은이의 날'로 시작된 WYD의 연계성 안에 놓여 있으며, 아시아 청년 대회인 AYD와도 깊은 관계 안에서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이 3개의 대회는 서로 같은 맥락을 지니고 있습니다. KYD는 한국 가톨릭 청년들이 한곳에 모여 연대와 소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원 의식을 회복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따라서 한국 가톨릭 청년들은 이 대회를 통해 그들의 삶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식별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KYD를 주관하는 서울대교구에서는 지역교구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이 행사기간에 머물 수 있는 홈스테이를 본당별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희생적인 호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회기간이 삼복더위 중이어서 다소의 불편과 애로가 있겠지만, 젊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지내며 신앙 안에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청년들은 더욱 고맙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리라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홈스테이를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동참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교구에서도 행사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 중에 있는데, 한국교회 내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서로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장, 교회와 사회의 주역으로서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복음화 시도와 교회의 내적 쇄신, 효율 중심의 통합사목 실현 등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과 과제에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수용하고 이에 응답하며,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갑시다.

세상의 복음화가 곧 우리의 소명이자 교회의 사명인 만큼, 신앙과 이념을 뛰어넘어 진정성 회복과 열린 사목의 문화가 확산되게 합시다.

사회적 약자들과 동반자 관계의 스마트 소통과 사목 프레임을 변화시켜 평신도 희년에 합당한 새로운 복음화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에 더욱 매진하기로 합시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도 주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에 의탁하면서 희망찬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한국. 평신도. 열두 마당'

정리
서상덕 편집위원

▲ 서상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과 성모님의 것이다.
내가 모은 재산을 성당에 바치려 한다.
세 분 조상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를 보여주는 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느님 나라의 생생한 모습부터 그분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자세하게 담겨 있다.

성경!

주님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하느님 나라 지도를 지니고 있다. 우리를 당신 '친구'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향한 여정 내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요한 15,14-15)

성전(聖傳)!

성경과 함께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하고 거룩한 유산'을 이루는 전통.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에서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는 "진리와 가르침이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은 성전들 안에 들어 있음을 안다."고 결정했다.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와 실천규범이 성서와 성전 안에 '들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성경은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그 전통의 진행 과정에서 산출해낸 산물이다. 억압받던 히브리 민족과 사도들의 전통이 낳은 문학적 산물이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면면히 내려온 전통이 없었다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전통이 성경을 형성시켰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해서 현실화시키는 단계에서도 그 공동체의 전통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을 성전이라는 본래의 배경에서 분리하여 독립시켜 버리면,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이 갖는 본래의 가치와 생명력을 없애버리는 결과가 된다.

이처럼 성전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다. 한민족이 격변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심성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전'의 기틀을 마련한 이들이 있었다. 하느님 나라를 향한 이들의 걸음은 그대로 한국교회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가 되었다.

10 열 번째 마당 – 이 땅에 뿌린 하느님 나라의 꿈 I

서상돈 아우구스티노(1850–1913년)

국채보상운동 선구자 새로운 성전(聖傳)을 세우다

쌀밥 보면 눈물부터 흘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쌀밥을 먹지 않겠다.'

당대 대구뿐 아니라 영남 최고 부자였던 서상돈(아우구스티노)은 쌀밥이 놓인 밥상을 보면 눈시울부터 붉혔다.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읜 서상돈은 백부 서인순, 숙부 서익순, 서태순 등을 친아버지처럼 여기며 따랐다. 그가 16세 되던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서상돈은 어린 나이에 백부의 옥바라지를 자처했다. 모진 고문에 지칠 대로 지친 큰아버지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피고름이 엉겨 붙은 멍석을 뜯어 먹는 모습을 눈물로 지켜봐야 했다. 막내 삼촌 서태순이 감옥에서 순교하자 피눈물을 삼키며 그의 너덜너덜해진 시신을 지게로 옮겼다.

그처럼 강렬한 원체험이 또 있을까? 그때의 기억이 그의 삶을 위대하게 재탄생시켰다. 어린 상돈은 모진 박해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골고타 언덕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으로 점철된 박해의 와중에 어린 상돈은 결심한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 이 땅에 주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 절대로 쌀밥은 먹지 않겠다고….

신앙이 신앙을 낳아

서상돈은 1850년 10월 17일(음) 부친 서철순(徐哲淳)과 모친 김 아가타의 2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상돈 집안의 신앙은 4대조 서광수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서울에서 살던 서광수는 1784년 이승훈이 중국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 천주교회가 창립되었을 때 여섯 아들과 함께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이듬해인 1785년 을사추조적발 사건 때 연루돼 문중으로부터 파적당하면서 그의 가정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때 3남 서유오(徐有五, 1760-1807)의 가정이 충청도 장원을 거쳐 1839년 기해박해 때 아들 서치보(徐致輔, 1791-1840)와 손자(인순隣淳, 명순明淳, 철순哲淳, 익순翼淳, 태순泰淳)들이 경북 문경 여우목 교우촌에 들어와 살게 됐다. 박해에 쫓기고 쫓겨 다니다 자리 잡은 터이다 보니 서상돈 가정은 극도의 가난에 주려야 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선조들이 순교로 지켜낸 신앙은 그의 삶에 오롯하게 새겨져 있었다.

집안 어른들의 순교를 직접 지켜봐야 했던 소년 서상돈은 일찍 철이 들었다. 1859년 9세 때 부모님을 따라 대구로 이사 온 서상돈은 이미 13세

때 가게 점원으로 취직해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을 꾸리기 시작했다. 18세 때는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이들의 도움으로 보부상을 거쳐 경제인으로 성장해나가기 시작했다. 당시 대구 지역에 가톨릭 신자라고는 몇 집밖에 되지 않을 때였다. 대구는 물론 영남지역에서 손꼽히는 부호가 된 그는 자신의 독실한 믿음과 인격으로 많은 이들을 하느님의 길로 이끌었다. 특히 그는 자선사업에 헌신해 봄과 가을이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수백 석의 곡식을 기꺼이 내놓았다. 가난을 누구보다 잘 알게 한 어릴 적 기억이 배경이 됐다. 그의 이런 자선에 감동해 입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 땅에 새로운 성전(聖傳)을 세우다

서상돈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새겨진 소명이 있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명은 김보록(Robert, A. J. 金保祿)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 본 궤도에 올랐다. 1885년 서상돈의 나이 35세 때 대구지역 전교 책임을 맡은 김보록 신부가 신나무골 교우촌으로 왔다. 상돈은 서태순의 딸인 사촌 여동생 서 마리아와 함께 교회 일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888년 겨울, 김보록 신부는 신나무골에서 대구와 가까운 죽전 새방골로 옮겨 3년간 은신하며 전교활동을 펼쳤다. 낮에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밤이면 상복으로 변장하고 신자 가정을 찾아가 성사를 주다가 5년 뒤 대구로 거처를 옮겼다.

서상돈은 김보록 신부를 통해 근대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달았다. 김보록 신부는 조선에 대한 사랑이 유별해 바쁜 사목 중에도 학교를 개설하여 많은 이들에게 배움을 길을 열어 놓았다. 1899년을 전후하여 대구읍내 새방골 · 대어벌 · 영천 등지에 학당을 설립할 때, 서상돈은 교회 내 신자들의 힘을 모아 재정 지원과 학교 운영을 도왔다.

계산동본당 부속인 한문서당 해성재(海星齋)도 그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 날로 발전을 거듭하던 해성재는 1908년 4월 1일, 근대식 교육기관인 성립학교(聖立學校)로 탈바꿈했다. 이 학교는 2년 뒤 부속으로 야간부인 성립여학교를 설치하는 등 여성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서상돈은 1905년 달서여학교 설립에도 적극 관여했다. 달서여학교는 1909년 학부대신(대한제국 때에 학무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으로부터 정식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며,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부인 야학회를 운영하는 등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여학교로 발전을 거듭했다.

서상돈이 대구대교구 설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1911년 교황 성 비오 10세는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던 교구를 하나 더 늘리기로 했다. 조선교구를 서울교구와 전주교구로 나누고, 서울교구는 충청도 이북을, 경상 전라는 전주교구가 관할토록 할 계획이었다. 서상돈은 이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당시 조선교구장 뮈텔(Mutel, 閔德孝, 1854-1933, 아우구스티노) 주교를 찾아갔다.

"내 나이 갑년입니다. 평생을 교회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생전 꿈이 있다면 프랑스 루르드 지방의 성모를 모신 마사비엘 동굴과 꼭같은 성모당을 주교당 앞에 짓고 싶습니다. 부디 새 교구를 대구에 설립하도록 해주십시오."

서상돈의 진심 어린 간청에 감복한 뮈텔 주교는 쾌히 승낙했다. 지금 남아있는 대구 성모당은 서상돈이 프랑스 루르드 지방의 마사비엘 동굴과 같은 모양으로 건립하는 데 이바지한 곳으로 교회에 대한 그의 사랑이 담겨 있다.

이후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된 드망즈(안세화) 주교가 대구에 부임해 오자 서상돈은 계산동 성당 앞에 있던 누이의 집을 주교 관저로 제공했다.

◀ 흉상제막: 2011년 4월 8일 대구대교구 서상돈 선생 흉상 제막식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운데), 전임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조 대주교 오른쪽), 서상돈 선생의 증손자 서공석 신부(부산교구 원로사목자) 등이 흉상을 제막하고 있다.

◀ 2013년 8월 6일 서상돈 선종 100주년 추모미사

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수만 평에 달하는 남산화원 전부를 교구 사업에 기꺼이 내놓았다. 이곳에 대구대교구의 중추라 할 주교관, 신학교, 수녀원, 고아원, 성모의 루르드 마사비엘 동굴 등이 들어서게 됐다.

서상돈은 자신의 집 사랑채에 모인 식객들을 수시로 만나 복음을 전하는 등 직 · 간접적인 전교활동에도 나섰다. 그는 대구 중구 계산동에 집을 지어 많은 식객에게 편의와 안식처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 이에 많은 사람이 감화를 받아 천주교에 입교했다.

서상돈이 우리나라 역사에 새롭게 세운 성전(聖傳)이 있다. 바로 국채보상운동이다. 서상돈은 외세의 국권침탈에 맞서 나라 지키는 일에 앞장선 독립협회의 주요 회원으로 활약했다. 독립협회 제4기 민중투쟁기에는 그가 재무부 과장 및 부장급의 일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했음을 알려준다.

1907년 2월 16일 대구 광문사(廣文社)에서 그 명칭을 대동광문회(大東廣文會)로 개칭하기 위한 특별회를 마친 뒤, 광문사 부사장으로서 국채보상운동을 제안했다. 담배를 끊는 등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고 있던 국채 1300만원을 갚자는 것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800원을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200여 명의 다른 회원들도 만장일치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였다.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金光濟) 등과 함께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 『황성신문(皇城新聞)』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 『제국신문(帝國新聞)』 등을 비롯한 민족언론기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서상돈이 앞장선 대구 지방의 국채보상운동은 전개 방법이나 열성 면에서 단연 돋보였다. 나라를 살리자는 일에 공감한 이 운동은 나라와 국적마저 뛰어넘는 바람을 일으켰다.

국채보상운동에는 양반 · 부유층은 물론 노동자 · 농민 · 부녀자로부터 상인 · 군인 · 학생 · 기생 · 승려 등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은 계층이 없을 정도였다. 유아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용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들은 상상을 초

▲ 1918년 10월 13일 축복 당시의 대구 성모당

▲ 2013년 4월 19일의 대구 성모당

월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반찬값을 절약하거나 비녀 · 가락지 · 은장도 등을 의연품으로 기꺼이 내놓았다. 일본 유학생들과 멀리 미주 사회에 있던 교포들도 의연금을 보내왔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참여하는 등 열기를 고조시켰다. 어느 서양인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하면서 4원을 내놓았고, 평남 영유군 이화학교(李花學校)의 일본인 교사 정유호빈(正柳好彬)도 2원을 기탁하는 등 외국인의 동참도 꾸준히 늘어났다. 이에 불안을 느낀 일제와 친일 세력의 거센 반발과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이 운동은 사그라질 줄 몰랐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끝내 좌절되고 말았다. 그때 모인 자금은 그 뒤 전개된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쓰였다. 국채보상운동은 비록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지만, 우리 민족의 힘과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한 민중의 교향곡이었다. 국채보상운동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다시 살아나 세계인을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평상시 서상돈은 기회가 닿는 대로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느님과 성모님의 것이다. 내가 모은 재산을 성당에 바치려 한다. 세 분 조상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서상돈은 자신이 바치는 재산은 세 분 순교자 대신 바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드디어 마사비엘 동굴과 주교당 건립 작업이 시작됐다. 건립에 10년 세월을 작정한 서상돈은 매일같이 공사장을 찾았다. 3년이 지날 무렵 건강이 악화됐다. 그는 아들 병조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다.

"남산고개 성모당을 꼭 이룩해야 한다. 내 뜻이 아니라 성모님의 뜻이다. 내 재산도 성모님의 것이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염원하던 성모의 루르드 동굴이 화원 언덕에 건립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1913년에 선종,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한다면 나에게는 그것도 보람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필리 1,21-23)

이처럼 서상돈은, 사람은 믿음만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야고 2,17)을 그대로 실천하여 믿음이 척박한 이 땅에 새로운 성전(聖傳)을 세웠다. 그가 이 땅에 세운 거룩한 전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특집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맞이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다【권길중 회장】

성소의식 지닌 평신도가 되어야

▲ 권길중 회장

대담 · 정리
김문태 편집장

2018년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설립 5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역대 평협 회장을 만나 지난 50년을 회상하는 한편, 앞으로의 5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는다. 때 이른 초여름의 더위가 느껴지던 지난 5월 18일 서울 명동에 자리한 가톨릭회관 5층 평협 사무실에서 권길중 바오로 전 평협 회장을 만났다. 그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제20대와 제21대 평협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0년에 태어나 논산대건고등학교 교사로 출발해 서울 영등포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기까지 43년간 청소년 교육에 헌신했다.

✣ 세례는 언제 받으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개신교 신앙생활을 쭉 해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아는 분이 가톨릭학교에 원서를 내보라고 권고해서 논산대건고등학교에 서류를 냈어요. 그 학교에 최종면접을 하러 갔는데, 제 스스로 개신교 신자라고 밝히고 개종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개신교 학교는 목사 추천서가 없으면 서류도 받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의아했어요.

그래서 1964년 2월 말에 출근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면접위원장이었던 논산 본당(지금 부창동 본당)의 고 손만재 세례자 요한 신부님에게 인사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개종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면서 다만 한 가지, 종교개혁을 가르칠 때 다양한 책의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수업해달라는 거였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지요.

그 후에 신부님을 찾아가 성모공경과 성체에 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어요. 지는 사람이 이긴 사람의 종교로 개종하자고 하면서요. 그런데 토론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이 다 깨졌어요. 제가 패배를 인정하고 개종하겠다고 하니까 "신부님은 천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내기로 하느님을 받아드릴 수는 없

▲ 프란치스코 교황 꽃동네 방문(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제공)

다고 생각한다. 언제든 그분의 노크 소리가 들리면 그때 오라."고 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발로 논산 본당 사무실에 찾아가 교리반 등록을 했어요. 하느님께서는 참 기이한 방법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 교회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때는 라틴어 미사를 했는데, 신부님이 영어 미사 테이프를 들려주며 전례를 하나하나 해설해 주더라고요. 미사전례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러고는 숙제로 내준 해설서를 써가지고 가자 칭찬하면서 해설을 시켰어요. 그게 교회 봉사의 시작이에요.

1964년 성탄 때 세례를 받고, 1965년부터 해설을 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키워주기 위해 레지오 마리애에 입단시켰어요. 그다음에는 꾸리아 서기와 소년 쁘레시디움 단장을 시켰고요. 1966년도에는 사목위원을 하라고 해서 사목위원회 서기 겸 총무를 했지요. 논산군의 기관장 교리반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리반도 맡았고요. 그 당시 미사 때마다 속 시원하게 해설해 주는 총각을 눈여겨보던 장모님을 만나 1968년에 결혼 성소도 받았지요.

그리고 1970년에 서울의 공립학교인 옥수여중으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는 돈이 없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 오니까 돈이 없으면 명함을 내밀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오태순 토마스 신부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논산의 샬트르 수녀님들이 내가 상경한 걸 오 신부님에게 알렸던 모양이에요. 당시 신당동 본당의 사목회와 교리반이 전부 해산했다는 거예요. 보좌 신부인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제게 본당 주일학교를 재건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몰래 주일학교를 복원시켰는데, 그 때문에 주임 신부님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뒤에 강남 신사동으로 이사했어요. 신설 청담동 본당 사목위원회 전례분과 봉사를 하면서 미사해설을 했어요. 2년 뒤 잠실 본당이 분당되면서 그리 옮겨서 신부님과 일치하여 성전신축 등으로 힘든 시기였지만, 신나고 행복한 봉사의 날들을 봉헌했지요.

✣ 평협에서 봉사하시게 된 계기와 지향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저는 포콜라레라 불리는 마리아사업회 회원이에요. 한국진출 초창기 회원이기 때문에 일이 많아 본당 사목회장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포콜라레 대표들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평협 회의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때 한홍순 회장님이 저를 평협에 추천한 거예요. 그래서 단체 분과장과 교육분과장을 하다가 감사를 하고, 부회장을 한 후 2014년에 회장으로 선임됐어요. 저도, 다른 사람도 다 놀랐어요. 우선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이 회장이 된 경우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간 교회의 부르심을 거절한 적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수락했지요.

회장이 되고 나니까 하느님께서 제가 약하다는 걸 아시고 좋은 일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유경촌 주교님과 정순택 주교님의 서임 소식을 들었고, 다음에 염수정 대주교님이 추기경에 서임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복식을 위해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한국 평신도 대표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교황님과 평신도 대표 30명이 함께 점심을 들며 얘기를 나누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손희송 신부님과 교황방한준비위원회 기획위에서, 그리고 청주교구 장봉훈 주교님과 꽃동네 준비로 함께 일하게 됐지요. 그런데 현지답사 차 한국에 온 바티칸 추기경님들이 시복식 미사를 오후 3시에 하면 복사열 때문에 더워서 안 된다고

▲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해서 미사시간을 오전 10시로 바꿨어요. 평신도 대표들과의 만남을 오후로 바꾸면 점심을 안 해도 돼서 인원을 늘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으니까 평신도 대표도 153명으로 정해 꽃동네에서 교황님을 뵀지요.

그 후 기도 중에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루카 12,56)는 예수님의 꾸짖음이 저와 한국 평신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당시 주교회의에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서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주일미사 참여율이 25%(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발간한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주일미사 참여비율이 21.2%에 불과했다.)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평

▲ 프란치스코 교황과 평신도 대표들과의 만남(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제공)

신도도 보편사제인데, 주저앉아 있는 평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협 상임위원회에서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제안했어요. 다른 종교도 운동을 함께 하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 6개 종단에도 제안했지요. 그때부터 천주교를 비롯한 7개 종단이 함께하게 됐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평신도들이 신부님들과 함께 협력사목을 펼칠 줄 몰라서 보편사제직 수행에 매우 미온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지요.

그 이후 평협 50주년을 맞이해 주교회의에 희년 선포를 청원했어요. 2017년 추계주교회의에 의안으로 상정됐는데, 반대 없이 통과됐어요. 저는 주교님들도 이 시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이라고 판단해요.

✣ 평신도의 위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 평신도 희년'의 성구는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가 교회, 가정, 직장 등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두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고 맺어주신 것이라는 뜻이지요. 사제성소뿐만 아니라 결혼도 성소예요. 하느님께서 배우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성소예요. 모든 직업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일하면서 신바람이 나고 행복할 거예요. 결국 세례도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고, 교회 봉사도 하느님께서 불러주신 일이지요.

교회의 일은 신부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는 성소의식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런 성소의식은 우리 평신도들이 머무르는 본당과 가정과 직장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성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로 변화될 때, 우리들의 보편사제직은 충실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사제와 평신도가 협력사목으로 가야 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명한 사도로 보편교회의 최고책임자는 교황님이고, 교구의 책임자는 교구장 주교님이에요. 따라서 교황님과 교구장님의 사목방침에 순명하는 사제, 순명하는 평신도들이 본당 단위에서 서로 협력사목을 펼쳐야 해요. 성당에 들어올 때는 사회적 지위나 빈부나 학력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본당공동체가 돼야 하지요. 신부님이 부를 때는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것으로 알고 '예!'라고 대답하고 협력해야 하고, 신부님은 평신도 중에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제가 돼야 해요. 그게 바로 협력사목이지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종교를 믿는다면 천주교를 갖겠다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계기가 될 거고, 쉬고 있는 신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거예요.

만남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용기 있는 발걸음으로

한병성 세례자 요한
전주교구 평단협 회장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전주교구 평단협은 올해 신임 한병성(66) 회장을 맞이한 뒤 똘똘 뭉쳐 '새로운 복음화' 실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한병성 회장은 전북대학교 교수 및 공과대학장,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장 등을 역임한 공학자이다. 취임 이후 열성적인 활동으로 전주 평단협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병성 세례자 요한 회장에게 전주교구 평단협의 활동상과 준비 중인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 전주 평단협 회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사에서 "가치관이 혼돈된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끌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회장으로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올해 전주교구 평신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주 평단협의 긍정적인 변화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평단협의 활동이 곧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지향점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구의 훌륭하신 평신도 신앙선배들의 피와 땀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평단협을 일구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면서 올해 평신도 희년을 맞아 전주교구 평신도들의 교구발전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의욕을 토대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새삼스런 변화라기보다는 그간에 덜 드러난 긍정적 부분을 되찾고, 과하게 드러난 부정적 부분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평신도의 역할과 방향을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전개해나가기 위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김선태 교구장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신도의 고유한 사명, 평신도의 교회생활 등 평신도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새로 깨닫고 느끼는 신앙체험을 갖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교님께서는 평신도의 자발적인 힘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이것이 전체 교회의 전체구조 안에서 맞추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나 필요할 때는 아주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디뎌야 평신도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라고 용기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교구 평신도들이 이에 따른 지혜를 모으고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올해는 '우리 자신의 내적쇄신'에 주력

✣ 전주 평단협은 올해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관련 정신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유항검과 동정부부 기념상

▲ 전주의 순교자 묘지를 찾은 사람들

김선태 교구장님께서 올해 사목교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라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국 교회가 처한 사회 환경과 여건을 돌아볼 때, 현재 '새로운 복음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내적쇄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한 해 동안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첫째,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둘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교회 교리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등 교회의 가르침 적극 배우기. 셋째,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례 등 미사성제를 더욱 정성껏 봉헌하기. 넷째,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한 기도에 더욱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기. 다섯째, 자비의 물질적 사업을 새로 발견하는 등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등을 강조하시고 이를 위해 노력하자고 하셨습니다.

교구장님께서는 특히 지난 3월 9일에 개최한 평단협 회원연수 파견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저희 평단협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물질로 모든 것을 승부 걸려고 하는,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물신주의와 물질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관습이나 습관에서 벗어나 벌떡 일어나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이제는 공부하는 평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봉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정신은 두말할 나위 없이 겸손의 마음가짐이다." 이 같은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 평단협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내적쇄신을 위한 정신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전주교구 평단협의 복음화를 위한 정신운동은 희년맞이 사업인 '답게살겠습니다' 운동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관련 정신운동은 평신도 희년에 '답게살겠습니다' 운동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신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기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성체조배하기와 1주일에 한 번은 묵주기도 5단과 십자가의 길을 봉헌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현실중심으로 편향되어가는 교회 평신도의 모습에서 탈피하기 위해 교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교육 · 홍보팀을 운영해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정신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로 구성된 본당 순회 강사들을 파견해 교구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항목부터 우선 발굴하여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교구 주보인 〈숲정이〉에 평협 고정란을 확보해 주일미사 때마다 공지사항 시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우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해외봉사를 추진하고, '유니셰프'를 통한 모금이나 'UN난민 돕기'를 위한 교구민 대상 캠페인 활동도 전개합니다. 이 같은 다양한 이웃돕기를 실천해서 연말에는 본당들을 대상으로 사례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요안루갈다길 22km 도보순례 보람

✣ 복음화를 위한 정신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 취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정신운동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중요할 듯합니다.

우리 전주교구 평신도들이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복음화 관련 정신운동을 추진함에 있어 몸에 배어있는 관습과 습관을 벗어던지고, 꾸준히 공부하며 겸손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 요안루갈다제 포스터

▲ 요안루갈다제 전야음악제

봉사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교구의 여러 사업에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운동으로 무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버겁게 다가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감동어린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전주 평단협은 올해 어떤 사업들을 해오셨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워크숍과 연수 등 교육이 많습니다. 평단협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총 4차례의 워크숍이 예정돼 있고, 평단협 임원과 본당사목회 임원,

34개 단체 임원 등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 3차례 연수를 실시합니다. 지난 3월 9일에 천호피정의 집에서 1차 합동연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토의하고 '답게살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회원들이 마음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에는 행사가 많았습니다. 평단협 주최로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평신도에게 바라는 모습'을 주제로 5월 19일 치명자산 장막성전에서 한국예수회(치빌타 카톨리카) 모임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곽승룡 신부(대전가톨릭대 교수)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의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해주셨지요. 사도직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신앙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함께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5월 22일에는 희년맞이 도보순례를 실시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남의 사도' 유항검의 생가 터가 위치한 완주 '초남이' 성지에 집결해 치명자산 성지까지 22km를 하루 종일 순례하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평단협 소속 단체 회원과 본당신자 등 500여 명이 참여해주셨어요. 도보순례 중간에 모롱지공원 광장에서 함께 모여 점심을 했는데, 참으로 꿀맛이었습니다. 평단협 소속 단체인 로사리오회 봉사자분들이 도보순례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하며 도와주셨어요. 제18회 요안루갈다제 행사에 참여한 것도 중요한 활동이었습니다. 평단협 소속인 레지아에서 성모신심 피정을 주최해주셨고, 5월 25일에는 전동성당에서 요안루갈다제 전야 음악행사를, 5월 26일에는 요안루갈다 대미사를 치명자성지 광장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 우리 평단협에 소속된 회원들의 노고가 컸습니다.

10월에 순교자의 딸 '유섬이' 뮤지컬공연

✣ 올해 요안루갈다제 행사는 전주지역의 신앙유산을 지역민과 관광객, 나아가 세계인이 나누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유산은 신앙인만의 흔적이 아니라 도시의 역사 · 현장과 함께 숨 쉬어온 현양 문화유산이잖아요. 이를 전주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개발해 '성지'인 전주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요안루갈다제는 기간(5.19~5.26)도 대폭 늘렸고, 문화공연도 다수 진행해서 신앙인뿐만 아니라 문화 · 예술인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까지 유도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천주교인을 비롯해 지역민, 관광객이 함께 누리는 '신앙유산의 전주 문화콘텐츠화'의 첫 행보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 전주는 '순교의 땅'이라 불립니다. 순교정신 현양을 위해서도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전주교구는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성지의 보고입니다. 전동성당, 전주숲정이, 천호성지, 여산숲정이, 고창개갑장터, 초남리, 전주 초록바위, 전주 서천교, 치명자산, 전주옥터, 김제동헌 형장터, 나바위성당 등 성지가 12곳이나 됩니다. 성지를 순례할 수 있는 도보순례길도 많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진주'로 추앙받는 동정부부 순교 복자인 유중철 요안과 이순이 루갈다를 기리는 요안루갈다길(초남이성지~치명자산 성지, 22km)과 순교자길(나바위성지~천호성지, 24km), 치명자길(전주시내 성지, 5.6km)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5월 22일에는 특별히 전주평단협 주도로 요안루갈다길을 도보로 순례했고요, 5월 21~25일에는 전주교구민을 대상으로 지구별로 도보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순례길을 찾는 평신도들은 늘 차고 넘칩니다. 올해 특히 저희 평단협이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순교정신 함양을 위해 10월 27일에 순교자의 딸 '유섬이' 뮤지컬공연을 개최합니다. 전주소리문화전당 모악당에서 열리는데, 공연을 통해 생활 속에서 우리 평신도들이 순교자의 정신을 잊지 않고자 합니다.

▲ 신년교례회 및 임시총회

하반기에 해외 의료 봉사활동 추진

✣ 하반기에 다른 의미 있는 행사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활동을 준비 중입니다. 수도회와 현지 본당의 도움을 얻어서 필리핀 마닐라 인근 지역이나 네팔, 수단, 몽골 중 한 곳을 선정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의료 봉사팀(치과치료, 영양제, 의약품 등)과 물품 봉사팀(의류, 신발, 학용품 등)이 함께 가면 훨씬 효과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교구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 목표의 모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활동은 전주교구 평신도들에게 빈곤, 인권, 평화와 같은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주의 정신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이런 활동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도 크실 것 같습니다.

제 기쁨은 함께 활동하는 임원, 회원들과 함께 삶 속에서 복음화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신앙선조들이 죽음 앞에서도 한 형제자매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우리들의 가정과 본당, 교구 공동체가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평신도의 다짐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실천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회장님께서 신앙을 갖게 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제가 전주 서신동성당이 본당인데요. 특별한 체험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첫해에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우연히 아내와 둘이 어머님이 다니는 성당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성당 문 앞에서 우리 부부를 발견하고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부를 소개하는 어머님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보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중 간 것이 행복하실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한 달쯤 있다가 또 방문을 했더니, 그때도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나가는 것이 효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당을 나가게 됐어요.

✣ 평생을 상아탑에 계시다가 전북대학교 교수로 퇴직하셨는데, 오랜 세월 가슴에 새겨두신 잊지 못할 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5년 후에 유럽에 유학을 갔는데, 박사학위를 받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 전날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당일 새벽에 살던 집 옆의 성당에 가서 기도

를 했어요. 정말 시험에 잘 통과하게 도와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한국에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가톨릭교수회 창립하고 남성합창단 활동

✣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기도를 들어주셔서 박사학위를 받았지요.(한 회장은 프랑스 파스퇴르대학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한 기회에 재직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옆 성당의 신부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찾아뵀더니 전라북도에 '가톨릭교수회'가 없으니 가톨릭교수회를 만들어 달라는 주교님의 뜻을 전달받았다면서 저보고 교구 일에 재능기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톨릭교수회를 창립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톨릭교수회를 만들고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이 교구에 도움이 되도록 봉사하게 됐지요. 성지 개발, 오래된 성당 보수, 호남 가톨릭 역사 발굴 등에 가톨릭교수회 회원들이 각자 자기의 전공에 맞게 참여해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로서 전북대 큰사람교육개발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 한병성 회장은 공학도 출신으로는 흔치 않은 아마추어 음악가이기도 하다. 6년여 동안 '전주남성합창단' 일원으로 활동해오다 지난해 말부터 합창단 회장을 맡고 있다. 전주남성합창단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라면음악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1억 2,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독거노인들을 도왔다. 한 회장은 지난 1월 전주 평단협 회장 취임사에서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주 평신도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한 한병성 회장의 열성적인 리더십이 가져올 전주교구 평단협의 변화가 기대된다.

▲ 2018년 3월 9일 천호 피정의 집에서 열린 본당 사목회장단 · 평단협 회장단 연수

만남

평신도가 뛴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대담 · 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어느 가톨릭 신자 가정을 가든 십자고상, 성화, 성상 등을 하나 이상은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성미술(聖美術)을 끊임없이 보아 온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기에 너무나 친숙하고, 이를 통해 미술에 대한 안목도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안병철 회장이 역사와 현황 외에도 우리 주위에서 한국의 가톨릭 미술 창작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가톨릭 작가들이 준비 중인 전시회 및 활동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 안병철 베드로 회장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태동 배경과 설립 목적을 들려주십시오.

가톨릭미술가회는 194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지내신, 한국 가톨릭 미술의 개척자이자 선구자 장발(루도비코) 선생님에 의해 태동되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의 장발 선생님은 장면 박사의 동생이셨는데, 한국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작품 생활, 미술 교육에 전념함으로써 가톨릭 미술의 토대를 다지셨죠. 한국전쟁이 끝나고 1954년 성모 성년을 맞이하여 한국 천주교 '성미술 전람회'를 최초로 개최하게 되는데, 이 전람회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 가톨릭교회의 미술 발전을 위해 건축가 · 화가 · 조각가 · 공예가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뤄낸 전시였습니다. 한국 가톨릭 성미술에 든든한 초석을 놓았고,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 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전신인 서울가톨릭미술가회가 1970년 3월 19일에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죠. 이후 대구(1974년), 부산(1983년), 광주(1984년) 미술가회가 차례로 설립되었고, 1985년에 이르러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가 정식으로 주교회의 승인을 받아 창립되었습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미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 정신을 구현하고, 교회미술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각 교구 미술가회의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교회미술 창작 연구와 신앙생활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각 교구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조직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의정부교구와 군종교구를 제외한 14개 전 교구에서 조직되어 있습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는 담당사제 지영현(시몬) 신부님과 임원진(회장 1명, 부회장 3명[관구별로 1명씩], 사무국장, 총

▲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 기념 특별전-천국의 문(2014년 8월 15일, 국립고궁박물관)

▲ 제21회 가톨릭미술상 시상식(2018년 2월 7일, 파밀리아 채플)

▲ 광주 가톨릭 비움 나눔 페스티벌 오프닝(2017년 5월 24일, 광주대교구청)

▲ 병인 순교 150주년 기념 한국 가톨릭 성미술 재조명전 (2016년 9월 21~27일, 갤러리1898)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오프닝(2016년 8월 30일, 수원 시립아이파크미술관)

무, 재무, 감사)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교구별로는 지도신부님과 임원(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재무, 감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술을 전공한 9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 한국 작가가 그린 한국 최초의 가톨릭 미술작품은 무엇이지요.

장발 선생님께서 19세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유화로 그린 반신상 「김대건 신부」(서울대교구 소장) 작품이 현존하는 국내 첫 성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동 성당 제대 뒤에 그려진 유명한 벽화 「14사도상」(1925년)과 절두산 순교성지에 소장된 「성녀 김 골룸바와 아녜스 자매」도 그분 작품입니다.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주요 활동을 몇 가지 말씀해주시지요.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의 선물로 받은 창조적 재능을 창작 활동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교회미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복음 정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수준 높은 전시회를 개최하여 작품 전시를 통해 신자 및 일반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주요 활동을 들자

▲ 병인 순교 150주년 기념 한국 교회미술 연구 세미나(2016년 8월 24일, 서울대교구청)

▲ 성미술-나눔전 미혼모 돕기 기금 전달식(2018년 2월 27일)

▲ 한국교회미술 재정립을 위한 연구 세미나(2015년 9월 4일, 혜화아트센터)

면, 자신의 삶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 뵙고 기도와 묵상을 통해 창작 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을 위해 회원 각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교회미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 등입니다. 지속적인 피정, 교회미술 연구 세미나 개최, 원로 작가 선생님들의 작업 재조명, 회원들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일들, 새로운 교회미술 재정립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실천해가고 있습니다.

✣ 최근에 끝난 큰 규모의 행사나 조만간 치를 행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해 초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서울가톨릭미술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미혼모자 시설 돕기 '성미술-나눔전'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루어진 뜻깊고 의미 있는 좋은 전시회였는데, 기금 1,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희망'을 주제로 11월 9~14일 원주 치악예술회관에서 '2018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이 14개 교구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하여 개최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은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10주기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신 추기경님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주제로 다양하고 특별한 문화 행사를 서울평협 문화예술단체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2020년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한국 교회미술 반세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교회미술 정립과 발전을 위해 50주년 기념 대규모 전시와 『한국 가톨릭 교회미술 50년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오신 활동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미술이 성장해 온 바탕에는

원로 작가 선생님들과 각 교구 전 · 현 회장님, 많은 회원님들과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과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하나의 행사가 다 특별하고 기억에 남습니다만, 특히 기억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미혼모자들을 위한 '성미술-나눔전'이었습니다. 신문 · 방송 등 홍보의 도움으로 많은 분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셨고, 작품을 구매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성황리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향후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의 계획과 나아갈 방향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온갖 탄압과 수난에도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한국 가톨릭교회는 그 역사만큼 수많은 예술가들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성미술 걸작들을 탄생시켜 왔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사의 산물인 성미술은 신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협회는 내실을 향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2020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계기로 회원들의 영적 성장과 새로운 교회미술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으로 재도약을 하고, 미술 활동을 통한 평신도 사도직 역할에도 충실하고자 합니다.

✣ 이 밖에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현재 순교영성을 신앙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103위 순교성인 초상화가 뛰어난 능력을 지닌 협회 회원 작가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성인 초상화 제작 사업은 올 연말까지 완성되어 내년에 특별 전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름다움은 하느님께 이르는 하나의 길"이며, "참된 예술은 더 높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미술 속에 담긴 성스러움은 우리를 내면의 눈으로 보도록 초대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내면을 보도록 인도합니다.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훌륭한 성인화가 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 예술로써 찬미 받으소서. 저희 마음에 함께 하시듯 저희 창작에도 함께 하소서."

▼ 2016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전
(2016년 8월 30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나눔

신앙 선조를 움직인 한 권의 책

신앙생활의 입문을 위한 묵상서, 은총으로 가는 첫걸음 《신명초행》

정리
이귀련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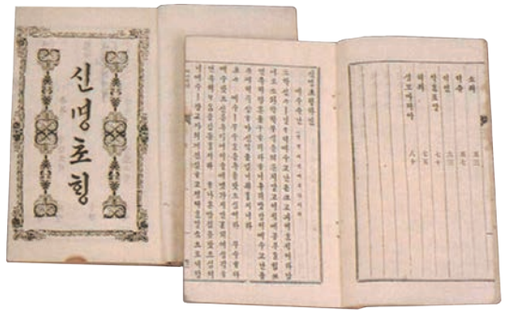
마리 다블뤼 주교의 생애

성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A. Daveluy, 1817-1866년)는 1817년 3월 26일 프랑스 아미앵(Amiens)에서 태어났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아버지는 공장을 경영하며 시의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프랑스의 전통적인 가정으로 가족 모두가 모범적인 신앙생활과 함께 덕행의 꽃을 피웠던 집안이었다. 그의 형제 중 2명이 사제가 되었고, 3명은 수녀가 되었다. 그는 어렸을 때 상냥한 성격이었으나, 억세고 침착하지 못한 성격을 고치려고 그의 부모는 특별히 교육에 힘썼다고 한다.

그는 1827년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생 아쉬르 기숙사에 입사하여 그 이듬해인 1828년 첫영성체를 하고 얼마 후 견진성사를 받았다. 그러나 기숙사가 곧 문을 닫게 되자 그는 생 리퀴에르(St. Riquier) 소신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사제직에 뜻을 두고 1834년 10월, 이시 레 몰리노(Issy-les-Moulineaux)에 있는 생 쉴피스(St. Sulpice)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 후 1840년 12월에 부제품을 받고, 이듬해인 1841년 12월 18일 사제로 서품되어 주교의 명에 따라 르와예(Roye) 본당의 보좌신부로 사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전교 신부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회에 입회를 간청하였다. 하지만 그는 1843년 10월, 예수회가 아닌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함으로써 꿈을 이루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가 되어 1844년 2월 6일 해외선교를 위해 류큐(琉球) 지방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1844년 9월 마카오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정치와 종교의 마찰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그때 마침 제3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어 조선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던 페레올 주교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선 선교사에 임명되었다. 이때 그는 부모님께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이제 저는 여러 해 동안 신부 없이 지내는 나라인 조선의 전교를 맡게 되었으니 큰 행복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혹 슬픈 마음이 드시거든, 우리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의 털 하나도 뽑지 못할 것임을 깊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다블뤼는 고 페레올 주교와 함께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1845년 7월 상해에 도착했고,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서품을 받은 지 몇 달 안 되는 김대건 신부와 함께 충청도 강경 황산포에 도착하였다. 이때부터 1866년 3월 순교하기까지 21년 동안 그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선교사가 되었고, 조선의 언어와 풍습에도 능통하게 되었다.

그는 조선에 들어와 자신의 조선 이름을 안돈이(安敦伊)로 지었다. 주로 경상도 지방에서 전교 활동을 하다가 1857년 부주교로 승품되었다. 이보다 앞서 1856년에는 충청도 제천의 배론에 한국 최초의 신학교를 세웠으며, 1859년에는 조선 교회의 순교자 150여 명의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여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내 이것을 《다블뤼의 비망록》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했다.

1866년(고종3) 병인박해 때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어 3월 8일에 참수되자 그의 뒤를 이어 제5대 조선교구장이 되었다. 하지만 교구장으로 임명된 지 3일 후인 11일 충청도 보령 갈매못에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 끝에 3월 30일 참수되었다.

1968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 200주년 기념 행사 때 방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되었다. 그의 저서에는 《신명초행(神命初行)》, 《회죄직지(悔罪直指)》, 《영세대의(領洗大義)》, 《성찰기략(省察記略)》 등이 있고, 역서에 《성교요리문답(聖教要理問答)》, 《천주성교예규(天主聖教禮規)》, 《천당직로(天堂直路)》 등이 있다.

《신명초행》의 구성과 내용

1) 구성

다블뤼는 보좌주교 시절 불어로 된 신앙생활 묵상서인 《팡세이비엥(Pensez-y-bien, '그것을 잘 생각하라')》이라는 책을 대본으로 하여 저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대본으로 삼았다는 그 책은 오늘날 파리외방전교회 도서관이나 그 밖의 프랑스 주요 도서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책은 베르뇌(Berneux, S. F. 張敬一) 주교가 감수하여 1864년 서울의 목판 인쇄소에서 상 · 하 2권으로 간행된 바 있다.

'신명(神命)'이란 말은 '하느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 내려주시는 초성(超性)한 생명인 상존성총(常存聖寵, 생명의 은총)'을 뜻한다. 그리고 '초행(初行)'은 글자 그대로 '첫걸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을 풀어 보면 '상존성총을 얻는 첫걸음'이 된다. 이 책은 신도들에게 은총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묵상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했다. 물론 이 책이 간행되기 이전에도 《묵상지장(默想指掌)》이라는 묵상서가 있었으나, 묵상 제목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결함을 보충하여 역술되었다.

《신명초행》은 서(序)를 포함하여 전체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 19장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말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통회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항상 '죽음 · 심판 · 천당 · 지옥'의 사말(四末)을 생각하며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하권 14장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 말고 소죄를 피하며 항상 애주애인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영혼 구원의 길임을 밝히고 있다. 각 장의 초사(初辭)에서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묵상의 자료를 제시하고, 계사(繼辭)에서는 묵상의 주제를 해설하며, 종사(終辭)에서는 묵상을 마무리 짓고 있다.

이 책은 판을 거듭하면서 19세기 후반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책으로 널리 보급되었으며, 1938년 성서 활판소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2) 내용

《신명초행》은 박해 시대 신도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심을 키워 주었고, 그리스도의 가난함을 본받아 스승이자 모범으로 삼아야 함을 설명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이에게 본보기가 되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해 주었다.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창조되어 하느님의 본성에 상접하게 되었으니 하느님처럼 고귀한 존재'라고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을 알기 쉽게 풀어 전하고 있다. 또한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의 모상과 함께 '영혼과 자주장(자기주장대로 함)을 주었다'고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

《신명초행》의 의의

"《신명초행》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읽히고 있었던 책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강력하게 제시해 주고 있던 책이었다. 그것은 당시 양반들이 한문으로 저술했던 그 어떤 책에서도 언급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19세기 후반기를 살았던 민중에게 제시해주었다. 그것은 만인들의 새로운 철학서요 종교서였다. 또한 이 책은 박해시대 신도들의 영성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명초행》은 한국사와 교회사에서 그리고 한국 사상사 분야에서 모두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사료인 것이다."(조광)

참고 문헌

- 한국학중앙연구원, '신명초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0.
- 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교회사 연구자료 제17집 《신명초행》, 태영사, 1986.
- 김옥희, 《103위 성인전》, 도서출판 순교의 맥, 2004, 316~319쪽.
- 조광, 「신앙 유산, 새 생명에의 초대 – 은총으로 가는 첫걸음, 신명초행(神命初行)」, 《경향잡지》 1993년 8월호, 80~83쪽.

나눔

신앙 선조의 불꽃 같은 삶

‘하느님의 종’ 김범우 토마스

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 김범우 토마스

지난해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대한 시복자료 제1집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에 자료집의 내용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하느님의 종’ 133위는 모두 평신도이며, 자발적 신앙 공동체를 세운 한국교회 초기 신자들로서 오늘을 사는 우리 평신도에게는 언제나 모범 중에 모범입니다. 그들에 관한 자료를 함께 읽어보면서 ‘평신도 희년’을 맞아 역사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첫 공로자

“김범우 토마스(金範禹, 1751-1787년)는 순교의 영광을 받았다.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 골고타에서 수난하신 것처럼 그는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구세주에게 바치는 영광을 가졌다. 그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하느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아버지이므로 충성과 참된 효성으로 지워진 의무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겪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피의 목소리로 증언하는 영광을 가졌다. 그는 처음으로 육신은 형벌에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완전한 불멸의 희망에서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이 극동의 폭군들에게 알리는 영광을 가졌다. 그러므로 조선의 수많은 순교자들 무리의 첫머리에 당연히 놓아야 할 것이다.”

제5대 조선대목구장 성 다블뤼(Daveluy, 1818-1866년) 주교는 『조선 순교사 비망기』에 김범우를 언급하면서 여러 차례 그가 한국교회사에서 ‘처음으로’ 겪어냈던 사건을 강조했다. 또한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에서도 “비록 참수당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신앙의 증거자로 죽었다는 것은 참되다. 김범우는 재판관들 앞에서 또 여러 형벌을 받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로를 지녔고 뒤에 오는 이들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다블뤼 주교는 자신이 『비망기』와 『약전』을 정리하던 불과 몇 해 전에도 “단양의 나이든 아전들은 외교인이면서도 여전히 존경심을 갖고 그에 대해서 말하곤 했다.”고 기록하였으니, 김범우 토마스가 아직 성인 반열에 들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될 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겠다.

▲ 경주김씨 세보

씨앗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

‘하느님의 종’ 김범우는 1751년(영조 27) 서울 남부의 명례방(현 명동 성당 부근)에서 중인 역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무관을 역임했으나, 부친이 역관 시험에 합격하여 사역원의 역원 판관에 오르면서 역관 집안으로 이름을 내게 되었다. 김범우는 집안의 장남으로 16세 되던 1767년에 천녕 현씨와 결혼한다. 부인 현씨[玄載淵]는 1801년에 순교한 복자 현계흠 플로로의 사촌으로, 혼인한 이듬해에 아들 인구를 낳았다.

『시복 자료집』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김범우 집안 소장 문서들 - 가첩 「경주김씨 세보」, 기일록 「장생보록첩」, 김동엽(김범우의 손자)의 「호구단자」 - 과 조선시대 통역관 등용시험인 역과 합격자의 주요 인적 사항을 적은 「역과방목」이 실려 있다.

잘 알려진 대로 김범우는 이벽(요한), 이승훈(베드로) 등 초기 천주교 신자들과 가깝게 지냈다. 그는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1784년 가을에 수표교 인근에 있던 이벽의 집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했다. 세례를 받은 즉시, 윤지충(바오로), 김종교(프란치스코), 홍익만(안토니오), 최필공(토마스), 변득중, 허속 등에게 교리를 전하거나 교회 서적을 빌려 주었다.

『정조실록』을 보면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사건, 즉 진산사건으로 순교한 복자 윤지충이 김범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다. 윤지충은 공초에서, “계묘년(1783) 봄 진사시에 합격하고 갑진년(1784) 겨울 서울에 머무는 동안 마침 명례동의 중인 김범우의 집에 갔더니 집에 책 두 권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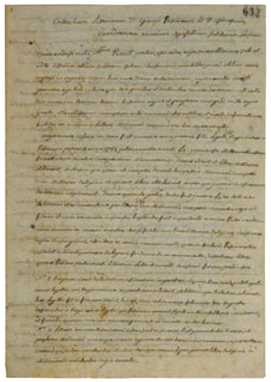
하나는 『천주실의』이고 하나는 『칠극』이었습니다. 그 절목에 십계와 칠극이 있었는데 매우 간략하고 준행하기 쉬웠으므로 그 두 책을 빌려 소매에 넣고 고향집으로 돌아와 베껴 두고 그 책은 돌려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한편 김범우는 아우 현우(마태오)와 이우(바르나바)에게도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켰으며, 스스로도 교리를 철저히 실천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신자들의 모임 장소로 제공하여 ‘명례방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했다. 1785년 이곳에서 한국 교회의 첫 공식 박해로 기록되는 이른바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이 일어난다.

『사학징의』 권2 부록인 「형조의 을사년 봄 공문」을 보면, “을사년 봄에 본 형조판서 김화진이 차대한 뒤에 출근하였다. 중인 김범우가 서학을

▲ 장생보록첩

▲ 추안급국안



▲ 구베아 주교 편지(1789.8.15)

받들어 봉행하므로 붙잡아다가 캐물었더니 김범우는 생각해 보아도 서학에는 좋은 내용이 많다. 그릇된 점이 있음을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범우가 투옥되어 형벌로 배교를 강요당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권일신은 아들과 이윤하, 이총억 등과 함께 추조판서 앞에 나가 압수한 성상(聖像)을 돌려주고 김범우와 함께 자신들도 처벌해 달라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어이 김범우는 유배되었고, 가지고 있던 책자는 모두 추조 뜰에서 소각되었다.

그가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공공연히 신앙을 실천하며 전교하였음은 『시복 자료집』에 언급된 여러 기록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김범우는 1786년 가을(혹은 1787년 초) 형벌의 여독으로 쇠약해져 하느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바쳤다. 한국 천주교회의 첫 희생자가 된 것이다.

투철한 신앙을 증명하는 기록들

『시복 자료집』에 따르면, 김범우에 대한 정부 기록은 『정조실록』, 『추안 및 국안』, 『사학징의』에 남아 있다. 또한 교회 기록은 다블뤼 주교의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과 『조선 순교사 비망기』 그리고 「1789년 북경 교회의 구베아 주교가 사천 대목구장 생 마르탱 디디에 주교에게 보낸 8월 15일자 편지」가 대표적이다. 특히 구베아 주교의 친필 편지는 바티칸 인류복음화성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는데, 지난해 바티칸에서 열린 한국 천주교회 역사 특별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에 전시되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한편 천주교를 반대하는 조선의 유생들이 지은 글을 수록한 『벽위편』(이기경 저, 이만채 편)에도 김범우의 기록이 있다. 천주교를 사교로 배척하고 박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편찬된 이 책에는 천주교를 공격한 최초의 공적 문서인 1785년 음력 3월에 작성한 「통문」도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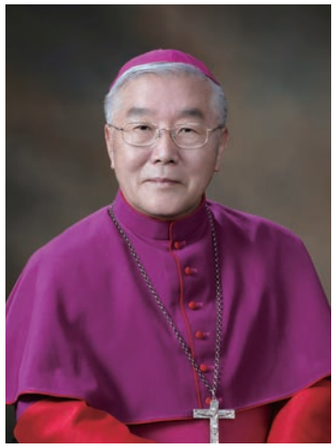
김범우에게 교리를 배우고 입교한 동생 현우는 그들 삼형제가 교리를 배울 때는 주문모 신부도 없었고, 맏형이 정배되어 죽은 후에는 집안에서 몰래 경문을 외웠다고 증언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된 두 형제 가운데 현우는 서소문밖 형장에서 참수로, 이우는 포도청에서 장사로 순교했으며 지난 2014년 두 분은 시복되었다.

진정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들의 피 흘림 덕에 감히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증언할 수 있겠다.

나눔

나의 신앙 선조

나의 잊지 못할 영적 스승, 주 꼬스딴조 신부님



유수일 F. 하비에르 / 군종교구장 주교

어떤 분은 세상을 떠날 때 쉽게 그리고 때로는 거의 영원히 잊히고 만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래 그리고 심지어 영원히 잊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감동과 영감과 가르침을 준다. 나에겐 후자에 속하는 분으로, 늘 내 마음 안에 현존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계속하여 영감과 자극을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분은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으로 내가 속한 프란치스코수도회(작은형제회)의 한국 선교사 주 꼬스딴조 신부님이다.

주 꼬스딴조(이탈리아 이름은 꼬스딴조 주뽀니) 신부님은 원래 중국에 선교사로 계셨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1950년대에 추방되자 일본으로 가서 몇 년 선교생활을 하셨다. 그러다가 1960년 중반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고, 1980년 위암으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나셨다.

내가 주 꼬스딴조 신부님을 가까이 하게 된 것은 유기서원 시절이었다. 성무일도서 번역과 편집을 맡은 우리 수도회 스페인 출신 선교사 신부님의 일을 돕기 위해 서울 정동 수도원에 자주 가던 1976년경부터이다. 번역자가 외국인이기에 내가 비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유기서원소가 있던 성북동 수도원에 살면서도 정동 수도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방학과 주말에는 정동 수도원에서 살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수도회 한국관구 부관장 겸 경리직을 맡고 있던 주 신부님을 가까이서 뵙게 되었다.

나는 정동 수도원에 살면서 주 신부님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임을 발견했다. 새벽 5시경이면 어김없이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서 묵상하셨고, 6시 15분 아침기도와 미사가 시작되면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아침기도만이 아니고 낮기도, 저녁기도도 충실히 바치셨다. 음악도 좋아하시고 영화도 좋아하셨는데, 그런 취미가 자칫하면 삶의 리듬을 깨드릴 수도 있었다. 그런데 주 신부님은 늘 변함없이 기도와 일을 충실히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셨다. 당시에 주한 교황대사가 대부분 이탈리아 출신이었는데, 교황대사님이 가끔씩 정동 수도원에 오시곤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보러 오신 것이었다.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사셨다는 한 예가 된다.

나는 주 신부님의 기도 정신이 눈물겹도록 감동을 준 한 순간을 기억한다. 주 신부님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쯤이었다. 병세가 위중해져 생의 마지막을 당신이 지극히 사랑하던 산청 성심원 나환자 마을에서 맞이하시고자 하셨다. 그곳에 내려가시기 직전의 어느 날이었다. 오후 4시경 병문안을 위해 신부님이 요양하던 정동 수도원 방에 갔다. 그런데 신부님이 뼈만 남은 채 기력이 거의 쇠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 떨리는 손으로 꽤 무거운 성무일도서를 펴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신부님, 일생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해 오셨는데, 이제 좀 쉬셔도 됩니다."

그러자 신부님 역시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하비에르, 잠시 후 간호사 베네딕타 자매가 오셔서 링거 주사를 놓아주실 건데, 몇 시간 걸릴 겁니다. 성무일도 저녁기도를 못할 것 같아 미리 바치고 있습니다."

나는 순간 '아! 일생동안 해 오신 기도생활이 거의 본능처럼 돼서 이 고통의 순간에도 빠짐없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 후 나는 병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성무일도 기도를 부득이 못 바칠 경우도 있지만, 일종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유혹 때문에 안 바치고 싶을 때마다 주 신부님의 기도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아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면서 성무일도서를 손에 잡는다. 나는 주 신부님의 기도생활을 되새길 때마다, 피곤하신 중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시어 한적한 곳에 가시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게 된다.(마르 1,35 참조)

주 신부님처럼 나도 음악을 좋아한다. 어느 날 세계적 테너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처음으로 한국 공연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유기서원자인 나는 돈이 없어 주 신부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웃으시면서 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하비에르, 나도 이 테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돈으로 표를 사서 이화여대 강당에서 개최된 테너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년 후였다. 1979년으로 기억되는데, 신부님께서 본국으로 휴가를 가신다고 해서 말씀드렸다.

"신부님, 휴가 때 시간되시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 테이프를 한 개 사오시겠습니까?"

그분은 내 요청에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휴가 후 약속대로 사온 테이프를 주면서 미소 지으셨다.

"하비에르, 제노바에서 이 테이프 파는 가게가 거의 없어 찾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신부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휴가 중 이탈리아에서 이미 암 판정을 받고 귀국하신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주 신부님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을 가졌다. 내게 테이프를 사다 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이 가게 저 가게 다니시느라 얼마나 고통 받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신부님의 형제적 사랑에 감사드리고 감사드렸다.

간호사 조 베네딕타 자매(현재는 대학 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주 신부님이 위암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너무 참으시는 것 같아 의사의 처방으로 진통제 주사를 놓아드릴 뜻을 비쳤다고 했다. 그러자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베네딕타 자매님, 예수님은 저보다 몇 배나 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맞지 않겠습니다. 산청 성심원의 고통 받는 나환자들에게 놓아주십시오."

그리곤 끝내 거부하시더라는 것이었다. 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이자 내가 속한 수도회의 창립자이신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두 요소가 있다. 그것은 바로 '관상적이고 은수자적 삶의 자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꺼이 고통을 참아 받는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걱정을 한다.

'만약 내가 육신의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과연 예수님처럼 참을 수 있을까? 살려달라고 외치는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을까?'

주 신부님은 참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주 신부님의 임종을 곁에서 바라본 형제의 말에 의하면, 주 신부님은 임종 한 시간 전 거친 숨을 내쉬면서 "성체, 성체!"라고 하며 영성체를 원하신 후, 성체를 받아 모시자 한 시간 후 평온히 눈을 감으셨다고 한다. 나는 그분의 그런 자세가 참으로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을 잘 드러내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세상을 떠나고자 하신 것이다.

나는 주 신부님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이 더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적으려고 한다. 관구 경리를 맡으시면서 당신을 위해서는 십원 한 장이라도 아끼셨고, 충실히 경리직을 수행하셨다. 어느 해 관구 총회 때 있었던 일이다. 관구회의 때 반드시 있는 것이 관구의 살림살이 보고인 경리 보고이다. 지난 몇 년간의 재정을 종합하여 보고하게 되는데, 지난해 관구 결산에서 잔액이 180,000원이라고 보고하자 한 형제가 걱정이 돼서인지 일어나 질책 같은 질문을 했다.

"아니, 관구 재정 잔액이 그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 주 꼬스딴조(꼬스딴조 주뽀니) 신부님

그러자 주 신부님은 잠시 시간을 가진 후 대답하셨다.

"사실 재작년도에는 100,000원 정도의 잔액 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살아왔습니다."

나는 주 신부님의 이 대답이 예사로 여겨지지 않았다. 주 신부님이 지닌 하느님 사랑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기에 나에겐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금도 주 신부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느님의 오묘한 사랑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깊이 생각해 볼 때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에 대해 찬미드리며, 그분의 오묘한 사랑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점이 아닌가 한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실 주 꼬스딴조 신부님께 하느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하며, 주 신부님의 전구를 청한다.

"주 신부님! 이 약점 많고 죄 많은 저를 위해 빌어주소서."

우르바노(Urbano) 신학교 생활 체험기 (5)

사제서품과 성지순례 후 귀국

박정일 미카엘 / 원로사목자, 전 마산교구장 주교

필자 박정일 주교

나는 우르바노 신학교 생활이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 당시 로마에서는 모든 강의와 시험 등이 라틴어로 이루어졌는데, 나는 한국에서 소신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라틴어를 배우지 못한 채 로마에 갔기 때문이었다. 첫 1년 동안은 매우 어려웠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또는 다른 나라 학생들이 라틴어를 잘 배우고 와서 어려움 없이 공부하는 모습은 몹시 부러웠다.

철학과 2학년 때였다고 기억되는데, 내가 사제가 되기 위하여 신학교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던 부모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모님 반대가 심해서 숨어 다니던 일, 그러던 중 내가 잠깐 소화불량으로 고생을 할 때 어머니께서 '신학교 못 가게 하니 병이 났구나.' 하시며 '가려면 가라.' 하시길래 기쁜 마음으로 덕원 신학교에 입학(1948년 9월)하였던 일 등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를 스쳐갔다.

철학과 3년과 신학과 4년을 마치고 사제서품을 받을 날이 다가왔다. 사제서품은 12월 20일로 예정되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반을 서품하시기로 하였던 아가지아니안 추기경(당시의 인류복음화성 장관)께서 한국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어서 한 달 앞당겨 11월 23일에 서품을 주시게 되었다. 우리는 예정보다 한 달 일찍 사제가 된다고 모두 기뻐하였다.

▲ 신학과 3학년 시절

나는 사제서품 기념 상본에 넣을 성경 구절을 무엇으로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나 주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성영 88,2. 지금의 새 번역은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시편 89,2)) 로 정하였다. 죄 많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사제로 불러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제로, 주교로 행복하게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하느님의 자애(사랑)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라는 지금의 시편 번역이 오늘의 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다.

▲ 사제서품 장면

나 주의 자비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리이다. (성영 88.2)

사제서품기념

박정일 미카엘

1958 ~~12-20~~ 11-23

로마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
하오리다. (시편 89, 2) <새 번역>

▲ 사제서품 상본

▲ 사제서품 당시의 필자

1959년 6월 우르바노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떠나게 될 무렵,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뜻밖의 좋은 학업의 기회가 주어졌다. 로마에서 사회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당시만 해도 로마의 가톨릭대학들에 사회학과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레고리안 대학에 사회학과가 생겨 전교지방의 젊은 사제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데, 그 장학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평양교구장 서리었던 안 주교(몬시뇰 캐롤 Mons Carroll)께서 이를 기꺼이 허락하시어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학문인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순조롭게 사회학 석사학위를 마치고 62학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62년 4월 주교님으로부터 귀국하라는 명을 받았다. 그 명을 받고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논문을 마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논문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되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더구나 주교님께서 부르시니…. 기쁜 마음으로 귀국 준비를 하였다. 로마에 갔던 해가 1952년이니 만 10년 만의 귀국이었다. 감개무량하였다.

귀국을 앞두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외국여행을 할 수 없을 터이니(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성지(이스라엘)를 꼭 다녀가고 싶었다. 아울러 도중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지순례는 로마에서 출발하는 순례단에 가입하여 동행하였다. 감동적이었다. 많은 사진을 찍었다. 이 먼 곳까지 성지순례를 못하는 신자들에세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00~800장의 환등용 사진을 찍었다. 귀국 후 신자들에게 환등으로 보여주었는데 얼마나 좋아하던지…. 오늘날에야 별것 아니

지만! 그 디아포시티부(환등용 사진)가 지금은 나의 서고 안에서 잠자고 있다.

성지순례를 마친 다음부터는 나 혼자서 무전여행을 하였다. 한국까지의 비행기 표는 이미 교구로부터 받았으니 여러 나라 여러 도시에 기착하여 구경도 하고 동창들(우르바노 신학교 생활 체험기 2, 3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 동창 및 선후배가 있었다.)을 방문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로마를 떠나기 전에 긴 여행을 계획하고 여러 나라의 비자를 받고, 동창들에게 도착과 출발 일시를 통지하는 편지를 쓰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제일 처음으로 기착한 데가 이라크의 바그다드였다. 다음에 인도의 뭄바이, 태국의 방콕, 월남의 사이공, 홍콩, 대만의 타이페이, 그리고 일본을 거쳐 9월 7일 오후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7월 초에 로마를 출발하였으니 장장 2개월간의 무전여행이었다, 혼자서 무거운 가방을 들고…. 돌이켜 생각하니 무모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무사고였으니 기적 아닌 기적이었다. 어여삐 봐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느님과 나를 따뜻이 맞이해준 동창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귀국 1주일 후, 나는 평양교구의 다른 두 신부(프랑스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유재국 바실리오 신부와 서울 신학교 출신인 장덕범 바오로 신부)와 함께 사제가 가장 많이 모자라는 부산교구 본당의 보좌신부로 임명되었다. 평양교구 소속 신부들은 북한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남한의 어떤 교구에 배속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초량 본당 보좌로, 유 신부는 서면 본당 보좌로, 장 신부는 주교좌 본당 보좌로….

임명을 받고 부임한 것이 9월 2일이었다고 기억한다. 그때만 해도 부산교구에 사제가 모자라서 주교좌 성당 같은 큰 본당에도 보좌신부가 없었다. 명예롭게(!) 우리는 부산교구의 역사상 첫 보좌 신부들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해인 1963년 봄, 우리 셋은 본당신부로 임명을 받았다. 나는 진양군 문산 본당신부로, 유 신부는 마산 월남 본당신부로, 장 신부는 합천 본당신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64년 부산교구가 부산교구와 마산교구로 분할되어 경상남도 서부지역이 마산교구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문산 본당 신부로 있던 나는 마산교구 사제가 되었던 것이다.

문산 본당에서 사목생활은 시작한 나는 문산 본당에서 4년, 진주 옥봉 본당에서 4년을 지내고 1970년 8월 광주가톨릭대학 교수로 임명받았다. 신학교 교수로 임명을 받았을 때 몹시 두렵고 당황스러웠다. 박사학위도 없는 나에게 대학교 교수라니…. 석사학위가 있어도 신학교 교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순순히 주교님의 명을 따라 신학교에 부임한 것이 1970년 9월이었다. 처음에 나에게 주어진 과목이 사회학이었고, 그 후 4년 동안 윤리신학을 강의하였다. 신학대학에서 5년 동안 재직하였다. 돌이켜 생각하면 그 기간이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기도 하였지만, 여러 기회를 통한 학생들과의 접촉, 유능한 교수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나의 사제생활에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기였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회상한다.

그런데 1977년 3월 어느 날, 제주교구장 임명이라는 청천병력 같은 통고를 받았다. 광주가톨릭대학 교수로 임명받았을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당황스럽고 뜻밖의 일이었다. 그때의 놀라움과 느낌 등을 표현할 적절한 어휘를 찾기가 어렵다. 주교 서품일은 5월 31일로 잡았다. 김수환 추기경님과 최재선 주교님(부산교구 초대 주교님)께서 서품되신 날과 같은 '복된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이었다. 서품일을 앞두고 기념 상본에 어떤 성경 문구를 넣을까 고민하였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다른 주교님들의 것도 참고하여 '충성과 온유'로 결정하였다. 집회서 45장 4절의 "주님께서 모세의 충실함과 온유함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의 요약이었다.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충성, 그리고 모든 덕의 기초가 되는 겸손(겸손한 사람은 온유하다.)을 모토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 제주교구장 문장

▲ 주교 서품식 광경

▲ 주교 서품식

▲ 주교 임명 교황 칙서

주교 서품식은 제주 주교좌 성당(중앙 성당)에서 신자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거행되었다. 주례주교는 당시 주한 교황대사이셨던 도세나(Luigi Dossena) 대주교님이셨고, 서품주교는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님(현 광주대교구 원로사목 주교)과 장병화 요셉 주교님(마산교구 제2대 주교, 1991년 선종)이셨다.(주교서품은 한 분의 주례주교와 두 분의 서품주교가 하게 되어 있다).

제주는 본래 광주대교구에 속하는 한 지역이었는데, 내가 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정식교구로 승격되었다. 당시 제주 주민이 약 50만 명이었는데, 신자수 약 5만 명에 사제수 불과 13명(한국인 사제 7명, 골롬반회 선교사제 6명)이었으니 젊은 초임 주교가 일을 익히기에 알맞은 작은 교구였다. 더구나 오늘과는 달리 복잡한 사회 문제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다. 그런데 1982년 6월, 5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나에게 전주교구장 전보발령이 내렸다. 전주교구는 제주교구에 비해 큰 교구일 뿐 아니라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구였다. 또 한번 당황스러웠다. 그런데 전주교구장으로 7년째 되던 1989년 2월, 나에게 또다시 마산교구장 전보명령이 내렸다. 교황님께서 두 번이나 나를 전보시키신 데는 아마 주교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 못 하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 번 잘 해 보라는 뜻이었으리라! 이렇게 나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세 교구를 거친 불명예스러운(?) 주교가 되었다.

▲ 전주교구장 문장

▲ 마산교구장 문장

2018년은 사제서품 60주년, 주교서품이 41주년 되는 해이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사제로서 20년, 현역 주교로서 25년, 은퇴 주교로서 15년을 살아온 셈이다.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각별한 은총 때문이었다.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바쳐야 할지, 더구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할지가 나의 크나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야기

사도직 평신도의 꿈과 희망

평협과 나의 신앙

김광현 안토니오 / 대전교구 평협 회장

오래전 예비신자 시절의 일화입니다. 예비자 교리를 가르치던 신부님께서 어느 날 제게 "왜 천주교 신앙을 선택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술·담배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조상님들의 제사를 모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순수하고 솔직한 답변이었다는 생각도 들지만, 낯 뜨거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어린 신앙 속에서 출발했던 제가 대전교구 평협(평신도사도직협의회, 이하 대전평협)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지만, 평협 회장이라는 직무가 혼자의 일이 아닌 교구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저의 신앙은 결혼으로 싹이 텄습니다. 장모님을 중심으로 처가 식구들이 모두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상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중 누구 하나 성당에 가자는 권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가톨릭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신들 모습을 보고 '네가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입교를 한 계기는 장모님의 장례미사였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미사를 봉헌하면서 가톨릭 신앙인이 될 것을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로 성당을 찾아가 예비자 교리반에 등록했습니다. 영세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성당에 다니기까지 아내를 비롯한 처가 식구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발로 예비자 교리반을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는 본당 전례부 활동을 시작으로 대건회장, 사회복지분과장, 전례분과장, 사목회 총무를 거쳐 사목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대건회장으로 봉사를 할 때 아시아 주교회의를 대전 탄방동 성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때 대건회원들과 각국의 나라에서 오신 주교님들을 간접 경호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사회복지분과장으로 봉사하던 중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어느 분이 시너를 병에 담아들고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너를 뿌려 폭발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아 등에 식은땀이 나는 상황을 별 사고 없이 처리하였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사목회장으로 활동할 때에는 2014년 8월 15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례하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부 사회를 맡는 영광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평협에서는 회장에 임명되기 전 2010년 평협 21대 기획운영분과장직, 2014년 평협 감사직을 수행하며 업무를 익혔습니다. 대전평협은 1966년에 결성돼 2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142개 본당 사목회와 교구 인준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순교 정신을 바탕으로 교구장이신 유흥식 주교님의 사목 방침에 따라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도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구 시노드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구 설정 70주년과 평신도 희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대전평협은 평신도에 의해 세워진 한국교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쇄신의 발걸음으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에는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며 142개 본당 회장단과 교구 단체장들이 함께하는 평신도 희년 축제 자리를 열었습니다. 본당과 단체 활동 일선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뒤로하고, 회장단들이 모처럼 명랑운동회

등을 통해 신앙 안의 한 형제 · 자매로서 함께 웃고 즐기며 내일을 위해 재충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 나눔과 생명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한생명운동' 전개는 대전평협이 지닌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교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주도하는 생명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삶을 본받아 혈액 부족과 장기 결핍으로 고통 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죽음의 문화에 젖어드는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인간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거듭 알려서 생명 문화로 이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질주의와 이기주의, 비인간화로 얼룩져가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몸(헌혈,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을 나눔으로써 생명의 빛을 밝히고, 평신도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는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운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월 3일 열리는 교구 청년 축제에서 '한생명축제'를 펼치려 합니다.

앞으로 평협회장의 소임을 마치면, 그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던 아내와 함께 떠나는 전국 성지순례를 하고 싶습니다. 본당과 평협에서 쉬지 않고 여러 직책을 맡아 봉사에 전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내 헬레나의 적극적인 내조와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밑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꼭 한번 본당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봉사 활동에 참여했지만, 늘 마음 안에 미진함과 부족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신자'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보시기에 착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주보성인과 나

하상 바오로

한일문 하상 바오로 / 마산교구 평협 회장

박해시대 우리나라 평신도 지도자 정하상 바오로 성인,
성직자들의 충실한 협조자로 소임을 다하신 그분의 삶을 닮고 싶어

명절을 맞아 고향 집을 찾는 기분으로 오랜만에 40여 년 전을 추억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내가 살던 곳에서 세 번이나 갈아탄 버스가 뿌연 흙먼지를 내며 자갈 깔린 한길을 한참을 달려가야 하는 시골의 군청이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은 선천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활동은 '재건학교'라는 야간학교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었다. 되돌아보면 시골의 생활은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된 날들이었다.

그렇게 6년이 지났을 무렵,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상급기관인 도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시골과는 다른 상황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도시 생활은 시골에서 가질 수 있었던 여유와 따뜻한 사람의 냄새를 느끼기에는 힘든 곳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무실의 답답함과 함께 어느 윗사람의 이유 없는 노골적 괴롭힘은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급기야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 회의 도중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됐다. 진찰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러한 증상은 툭 하면 나타났고, 가끔씩은 응급실 신세까지 져야만 했다. 물론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의원 등 여러 곳을 찾았지만, 병명은 '스트레스성 자율신경 경직증'이라는 단순한 증상에 대한 이야기만을 들었다. 결국 나 스스로 진단컨대 이유 없이 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생긴 병, 가슴에 응어리진 것을 나 스스로 풀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다. 쉽게 말하면 화병이라고 결정지었다.

그 당시 종교가 없던 나에게는 어떤 종교든지 신앙을 갖고 인간적으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을 절대자의 힘을 빌려서라도 용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다. 그런 생각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수롭게 않게 보이던 신축 중인 건물이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 건물은 바로 새로 짓고 있는 성당이었다. 사실 그때는 그 건물이 교회인지 성당인지 잘 몰랐다. 건물이 준공된 후 첫 교리반이 개설될 때 아내와 두 딸, 그리고 엄마 배 속에 있는 아들까지 5명이 한꺼번에 성당을 찾았다. 성당을 찾아가게 해준 그 상사가 밉지 않고 오히려 고맙기까지 하였다. 성당을 찾은 것이 이제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60여 년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결국은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잠언 16,3)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교리를 마칠 때쯤 대부를 정하고 세례명도 정해야 하는데, 스스로 찾아간 성당이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우선 세례명은 내가 정해 보기로 마음먹고 《생활교리》라는 책을 구입하여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기왕이면 우리나라 성인으로 정하기로 결심하였다. 평신도의 대표적인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성인품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따끈따끈(?)한 정하상 바오로 성인으로 정하고, 아내는 그의 누이이신 정정혜 엘리사벳으로 하였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성인의 본명을 가진 신자들이 거의 없을 때라 세례명만 들어도 세례를 받은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이름이 '하상'이고 세례명이 '바오로'인 줄 아는 분도 많았다.

정하상 바오로 성인은 조선교구 설정의 직접적 계기를 이루신 진보적이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셨다. 박해시대 우리나라 평신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조선교구 설정 이후 성직자를 계속 영입하였다. 또한 성직자들의 충실한 협조자로서의 회장 소임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시는 등 한국교회 발전에 지극히 큰 공을 쌓은 분이셨다.

흔히 우리 신자들끼리는 세례명으로 모시고 있는 수호성인을 닮아간다는 말들을 한다. 나 역시 그렇다는 생각을 한다. 돌이켜보면 내가 다니는 본당이 그때만 해도 신설 본당이라 세례를 받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교육부 차장이라는 직책과 함께 사목위원이 되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2년을 제외한 기간을 본당과 교구 평협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두 번의 본당 사목회장과 교구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거쳐 지난 1월에는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지만, 훌륭하신 교구장 주교님과 교구 신부님들의 사목을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충실하려고 한다.

지난 신앙생활을 추억해 보면, 하느님과 수호성인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께서 주신 탈렌트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다. 처음으로 본당 소식지인 주보를 만들고 매주 목요일이 되면 윗분들의 눈치를 보던 일, 교구 내에서 본당 단독으로는 처음으로 꼬미시움을 발기하여 창단했던 일, 하나의 본당을 네 개의 본당으로 나누어 사목하는 초유의 한 지붕 네 가족(?)의 '공동사목'의 기초를 마련했던 일 등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생각난다. 이런 일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나 스스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임에도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

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혜 엘리사벳 세례명을 가진 사랑하는 나의 아내의 든든한 후원과 이해도 컸다. 마치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온갖 정성으로 도와주고 기도해 주신 정정혜 엘리사벳 누이처럼 말이다. 아울러 성당 일을 한답시고 한창 아빠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던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신앙으로 바르게 잘 자라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싶다.

이제 마산교구 평협회장의 소임을 맡은 것이 두 달여라 아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마산교구 평신도들의 종이라는 생각으로 수호성인인 정하상 바오로 성인을 닮아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 하면서도 보다 낮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아무런 죄 없이 단지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피를 쏟는 형벌에도 태연자약하셨고, 일생을 오로지 하느님만을 위한 고귀한 삶을 사시면서 사형선고를 받아 형장으로 가실 때 얼굴에 기쁜 표정을 지니셨던 성인의 거룩하신 신앙을 닮아 살다가 언젠가는 그분의 곁으로 가고 싶다.

시

시가 있는 풍경

우리의 선조 평신도들이여!

김용해 요한 / 시인

지금으로부터 234년 전
동방에 빛나는 아침의 나라
한반도 이 땅에 하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성직자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오직 주님 혼자서 오시어
우리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을 심어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스스로 일어나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 나라를 세웠습니다
목자 없이 외롭게 지켜온 60년 세월
100년 동안 모진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순교로 지켜온 믿음의 터전

아아, 우리의 선조 평신도들이여!
거룩한 그 믿음 그 신앙으로
오시어 우리를 지켜 주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강산에
하느님 나라가 빛나게 하소서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하느님, 맙소사!"

김유철 / 시인, 삶예술연구소 대표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다. 당연히 각 종교를 신봉하는 종교인의 숫자도 덩달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종교란 말의 사전적 풀이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라 나와 있다. 그러나 종교란 한마디로 규정지어 부를 수 없는 것이며, 침묵 속의 산책에서 마주하는 새벽안개 같은 것이다.

시인 구상(具常, 1919-2004)의 시집 『인류의 맹점(盲點)에서』(문학사상사, 1988)를 〈작가가 감동한 작품〉으로 정하고 생전의 선생을 떠올린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가톨릭적 영성을 담은 시인' 하면 떠오르는 분이 늘 구상 시인이다. 시인의 굴곡 많고 뒷말이 다양했던 사회생활과 네편 내편 가리지 않고 마주하는 수많은 인물들과의 교류를 통한 후일담은 그의 삶을 그물코처럼 엮어 내고 있다.

인생 말기 한강변에 위치한 그의 집을 관수재(觀水齋)라 이름 부르며 시인은 멋스런 하얀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시인은 늘 그의 긴 그림자를 부끄러워했다. 위에 말한 선생의 시집도 사실 관수재시초(觀水齋詩抄)로서 발간된 것이다. 거기에 실린 선생의 시다.

어느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고 읊었지만 / 나는 마음이 하도 망측해서 /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고 어쩌구커녕 / 숫제 두렵다. ('고백' 일부)

나는 날마다 / 성당에 나가듯 윤중제(輪中堤)에 나아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을 바라보며 / 걸레처럼 더럽고 추레한 내 마음을 / 그 물에 헹구고 씻고 빨아보지만 / 절고 찌들은 땟국은 빠지지 않는다. ('근황' 일부)

이제 머지않아 나는 / 저승의 관문, 신령한 거울 앞에서 / 저런 추악망측한 나의 참 모습과 / 마주해야 하니 이 일을 어쩌랴! // 하느님, 맙소사! ('임종고백' 일부)

시인은 평생 자신이 걸어갔던 삶의 길과 신앙의 대상 앞에 선 마음을 "하느님, 맙소사!"란 시어로 가름했지만, 그 외마디를 가로지르는 그림자의 깊이는 더듬어 짐작할 뿐이다. 21세기 초엽 한반도 남쪽 인구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종교 인구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의 삶과는 간격이 더욱 커질 뿐이다. 우스운 것은 각 종단이 밝힌 종교인의 수가 총인구보다 많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종교를 이중 혹은 삼중으로 등록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어디선가 허깨비 숫자가 들어간 것임에 틀림없다. 아무튼 현재의 우리나라는 다종교국가임과 동시에 종교인의 국가임에 틀림없다.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종교전쟁 혹은 인도와 파키스탄 등지에서 벌어지는 종교를 바탕으로 한 분쟁만 없을 뿐이지, 대도시의 지하철이나 터미널은 선교경쟁의 장소이고, 웬만한 지역에는 각 종교들이 겹겹이 포진해 있다. 그뿐이랴, 같은 종교 안에서도 이른바 '내 식'으로 믿어야 한다는 교리 근본주의와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독선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한편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생활은 하나의 필수이기도 하다. 사실 정치권에서 종교인의 통계를 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를 두루 섭렵하는 '개불천교' 신자가 포함된 까닭에 각 종단이 자기네 사람으로 내세우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들은 세상의 종교를 모두 초월한 해탈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해탈은커녕 아수라에 가깝게 보일 따름이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움 이전에 이미 자신의 얼굴에 숯덩어리를 올려놓았다는 말일 것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부끄러움의 연속이며, 스승의 가르침과 달리 행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책의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길이다. 시인이기에 그 마음을 "하느님, 맙소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기에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인은 많고 넘치지만, 신앙인이 없는 세상이라고들 말한다. 더욱이 맑은 신앙인을 찾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하지만, 굳이 다른 사람을 찾을 필요가 있는가? 교회와 성당을 가는 사람들, 사찰을 찾는 사람들, 기품어린 서원에서 예를 갖추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의 길로 들어서면 될 일이다.

'열성'이 아니라 '영성'이 종교 창시자들의 의도를 생활로서 실천하게 하듯이, '열성'의 종교인의 아니라 맑은 '영성'의 신앙인이 그리운 날들이다. 사랑이란 말은 이제 빛이 바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라는 말이며, 자비롭단 말은 허공에 사라진 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자비로워야 한다는 낮은 목소리다. 휘파람새의 맑은 소리와 물가를 노니는 도요새의 한가로운 모습에서 밝고 맑은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신앙인이다. 바위틈을 비집고 올라온 동자꽃과 온몸에 가시를 박고도 해맑은 가시꽃을 보며 소박한 땅의 발걸음에 충실한 것이 신앙인이다.

하늘과 땅의 만남, 그 만남 속에 통로이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존재. 아마도 그것은 선택이나 성별(聖別)의 존재가 아닌 그저 '있음'으로서 충만한 그런 존재일 것이다. 그런 '있음'으로 아름답고 내밀한 신앙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운 밥 한 공기 서로 나누는 것이 교리 한 구절 외우는 것보다 우선이며, 생명과 평화가 모든 경전의 마침표이길 바라는 사람들 속에서 오늘도 교회의 종이 울리고, 사찰의 운판이 화답하며, 모스크에서 맑은 기도 소리가 나온다. 얼마나 서럽도록 고마운 일인가.

오랜만에 시인 구상의 시집 『인류의 맹점(盲點)에서』를 다시 펼치면서 그는 사라진 듯해도 여전히 시 행간에서 울리는 마지막 고백이 된 선생의 목소리를 듣는다.

고요 속에 나 또한 / 고요히 잠겼노라니 / 그 고요가 고요히 속삭였다. / 이제 너의 참 마음을 열어 보라고 // 그러나 나는 말은 못하고 / 눈물만 흘렸다. ('고요' 일부)

나의 거짓 사연에 / 그대들은 속지 말라. // 그리고 정녕 속 깊은 사연은 / 아직 한 번도 내지 못하였음을 / 이제사 그대들에게 고백하노라. ('나의 시2' 일부)

평신도 양서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나로 사는 걸 깜박 했어요

홍성남 지음 / 가톨릭출판사 / 148×210 / 240쪽 / 12,000원

국내 최고 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가 홍성남 신부가 루카 복음서에서 찾은 나를 돌보는 법을 알려 주는 책이다. 인생은 참으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모두 항상 행복하면 좋겠지만, 사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 각자 모두가 평범해 보이지만, 그들과 깊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마다 남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아픔을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서 풀어내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마음을 돌보는 법'을 다양하게 들려준다.

캘리그라피와 함께하는 힐링 복음 산책

이장환 지음 / 으뜸사랑 / 140×205 / 372쪽 /20,000원

사제 생활 25년을 갈무리하면서 펴낸 주일 복음 묵상집이다. 가 · 나 · 다해와 대축일 복음을 망라하고 있으며, 묵상 글마다 복음 말씀 가운데 주제가 되는 성구 한 구절씩을 저자가 오래도록 벼려 온 붓글씨로 직접 써 넣었다. 이 책은 성서 해설서도, 강론집도 아닌 저자가 일선 사목 현장에서 본당 교우들과 눈을 맞추면서 떠올랐던 영감들을 친숙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 책은 단번에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주일마다 그날의 복음을 읽고 이 책의 묵상글로 영적 목마름을 채우는 식으로 읽으면 된다. 덤으로 정성스레 적은 복음 구절 캘리그라피가 일상에 지친 독자들의 눈과 마음에 복음의 기쁨이 스미도록 돕는다.

한국 천주교회의 뿌리 공소

천주교 서울대교구 가톨릭사진가회 작품 / 가톨릭출판사 / 210×280 / 676쪽 / 60,000원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진가회가 한국 천주교의 소중한 신앙 유산인 공소들이 폐지되고 흔적조차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사진으로 기록하여 남기는 일을 추진해 온 지 5년 만에 결실을 본 사진집이다. 34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전국에 산재하는 공소들을 찾아가 사진을 촬영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630개 공소를 이 책에 담았다. 전국의 공소를 모두 대상으로 했으므로 폐지되었더라도 공소 건물이 남아 있는 곳과 촬영 후 본당으로 승격된 곳도 포함하였다. 군종교구 공소와 해외 공소는 촬영이 여의치 않아 제외하였다. 가톨릭출판사와 염수정 추기경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 소중한 자료의 출간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느님을 미워해도 될까요?

피에르 볼프 지음 / 생활성서사 / 128×188 / 192쪽 / 10,000원

아픔을 겪거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불평을 늘어놓거나 그분께 미움의 감정을 품기도 한다. '미움'은 나쁜 것일까?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저자 피에르 볼프는 미움도 소통의 한 방법이며, 미움의 대상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지지 않는 이상, 그 관계에 여전히 희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갈라놓는 화와 증오가 오히려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 '감히' 항의했던 성경 속 인물 욥의 말들을 풍부히 인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하느님을 미워해도 되냐'니 화들짝 놀라 이 책을 집어들었다가 뜻밖의 깨달음을 얻는다.

감탄과 가난

모리스 젱델 지음 / 성바오로 / 150×210 / 240쪽 / 15,000원

스위스 영성가 모리스 젱델이 베네딕토회 수녀들을 대상으로 한 피정 강론을 엮은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쉽게 풀어내고 있다. 이 하느님의 사랑은 '내어줌'이라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통해 드러난다. '성부는 말씀이신 성자에게 자신의 모든 본성을 물려주며, 성부와 성자는 성령에게 그것을 전해준다.' 삼위일체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존속하는 관계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계는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더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더 철저히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소명을 깨닫게 된다.

신이 없는 세상

안셀름 그륀 지음 / 분도출판사 / 150×215 / 264쪽 / 16,000원

20세기의 문턱에서 세상을 떠난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이 없는 세상을 선언했다. 또 초기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그리스 철학과 로마 문명에 발을 들이게 한 사도 바오로는 아직 '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연설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의 진단과 신을 일깨우는 바오로의 연설, 두 극단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책은 신앙과 불신앙의 동기와 태도를 진지하게 따져 묻는다. 신앙과 불신앙은 단어와 문장과 판에 박힌 문구로 만들어진 어떤 고안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지향, 즉 신뢰와 실존적 책임이다. 이것들은 신과 함께하든, 신이 없든, 신 안에 있든 중요하다. 이것들은 끊임없이 중요하며, 신을 떠났어도 중요하다.

복음이 나에게 물었다

에르메스 론키 지음 / 바오로딸 / 135×200 / 224쪽 / 13,000원

이 책은 마리아의 종 수도회 소속 에르메스 론키 신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초대로 교황청에서 행해진 영신수련 대피정 기간에 강의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저자는 예수님이 하신 많은 물음 가운데 의미 있는 물음 10가지를 뽑아 자신의 체험과 함께 풀어간다. '복음의 본질적인 물음'을 통해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진 예수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운 형제들에게, 세상의 이기주의로 상처 입은 가난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강생하시도록 도와준다. 각 장을 적절한 시나 묵상글로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때문에 묵상의 깊이를 한층 더 끌어올려 준다.

소식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8년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4월 13~14일,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2018년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제51회 정기총회 이후 2018년 첫 회의로 개최된 춘계 상임위원회에는 15개 교구 회장단과 8개 상임단체가 참석하여 총 68명이 회의에 함께했다.

제1호 안건으로 각 교구 · 상임단체별 '한국 평신도 희년' 계획과 실시사항에 대한 발표와 함께 교구와 단체에서 제작한 평신도 희년에 관한 자료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예산 추가분에 대한 예산 확정(제2호 안건), 50년사 편찬(제3호 안건),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제4호 안건),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독후감 공모(제5호 안건), 주교회의 산하 문화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한국평협 문화위원회 명칭 변경(제6호 안건), 한국평협 설립 50주년 기념 감사미사 일정과 참가범위 협의(제7호 안건)까지 총 7개의 안건이 다뤄졌다.

제1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은 긴 시간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감사미사의 참석 범위를 일반 평신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행사의 규모와 장소 사용 여건 등으로 인해 각 교구 평협에서 10명 내외로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일정안은 그대로 통과되었다.

회의 말미에 기타사항으로는 '낙태법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낙태법에 대한 헌법소원 기각에 관하여 한국평협 교구 회장단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하고 주교회의 생명위원회에 제출하여 주교회의와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개막미사와 특강은 안동교구 교구장인 권혁주 주교가, 파견미사는 안동평협 담당사제 김정현 신부(안동교구 사목국장)가 집전했다.

둘째 날은 문경성당에서 파견미사를 봉헌하고 마원성지를 순례하며 춘계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는 7월 6~7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각 교구 회장단과 전국 27개 회원단체가 함께하는 전반기 연수회로 개최한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희년 정신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이하 서울평협, 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는 지난 3월 23~24일, 홍천에서 서울평협 임원, 단체장 60여 명이 모여 2018년 서울평협 연수를 가졌다.

이번 연수에서는 지난 1월 13일, 새로 출범한 제22대 서울평협 임원들과 회원단체장이 모여 앞으로의 평협의 운영방안과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는 평신도들의 다짐'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그룹별로 토의했다. '평신도 희년'을 보내면서 나눔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잠비아 AIDS 감염 고아 돕기'와 '꿈터(탈북민 쉼터)' 돕기를 위한 후원 신청서를 받아 폐막미사에서 봉헌하였다.

담당사제 조성풍 신부는 개막미사에서 안동교구 권혁주 주교께서 2013년 사제성화의 날에 나눈 '사제들의 진복팔단'을 평신도에 적용한 '평신도들의 진복팔단'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가로등의 비유'를 이야기하며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평협 기획홍보위원회가 그룹별로 나온 토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날 참가자들의 생각을 담은 '희년 정신의 실천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다짐문을 폐막미사에서 발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 서울평협 '리더십 과정' 개강, 평신도 리더십 위한 교육 올해도 이어져

서울평협은 지난 3월 5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2018년도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을 개강했다.

2016년 신설되어 올해로 3년을 맞는 리더십 과정은 평신도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기초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평신도 사도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평신도 리더십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손병선 회장은 수강생들에게 "리더십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하는 기쁨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환영과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

이번 리더십 과정 12주차 강의가 모두 종료되는 오는 6월 11일에는 수료식이 진행된다.

● 서울평협 설립 50주년 맞아 〈초기교회 평신도들의 믿음 살이〉 주제로 순례

서울평협은 설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초기교회 평신도들의 믿음 살이〉를 주제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이번 순례는 한국 평신도 희년을 맞아 한국 교회의 반석을 세운 초기교회 평신도 신앙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꾸

려졌으며, 35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다.

순례 첫째 날, 참가자들은 초기교회 평신도들이 강학회를 펼쳤던 주어사 터를 도보순례하고 숲속강학회를 가졌다. 이후 여주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순례 전 일정을 동행한 조성풍 신부는 강론에서 "이번 순례를 통해 그동안 가졌던 생각과 마음가짐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을 향한 의식의 전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둘째 날은 황새바위성지를 순례했다. 순례객들은 무덤경당 벽에 새겨진 수백의 순교자들 이름 앞에 머물며 신앙을 증거하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 진산성지를 들르고, 윤지충 압송로를 도보순례했다. 마지막으로 초남이성지도 방문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다.

순례 마지막 날의 여정은 개갑장터순교성지에서 시작했다. 복자 최여겸 마티아의 순교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놓은 현양탑 앞에서 순례객들은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영광성당을 거쳐 마지막으로 홍산관아를 순례했다. 홍산은 내포의 사도 이존창이 열렬한 전교 활동을 펼쳤던 지방이다.

파견미사는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 집전으로 봉헌됐다. 손 주교는 "평신도 희년을 맞아 성직자와 평신도가 서로 목숨까지 바쳐가며 아꼈던 초기교회의 모습을 기억하자. 주교와 사제 그리고 평신도가 뭉칠 때 온전한 교회가 형성된다. 우리 모두 이 모습을 이어받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 서울평협, 한국 평신도 희년 맞아 기념 음악회 개최

서울평협은 지난 5월 28일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서울평협 설립 50주년과 한국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시작 인사에서 "아름다운 성모성월에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 성가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평신도 희년을 맞아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음악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트리니타스 합창단과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교회음악과 한국평협에서 선정한 우리성가공모 수상곡을 연주했다. 희년을 맞아 마련된 음악회에 900여 명의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축제의 시간을 보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6회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한 '제6회 춘천교구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가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인천 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혜종 지도 신부와 춘천교구 평신도 80여 명이 함께한 이 순례는 해마다 지역별 성지를 방문하여 순교자의 넋을 기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시간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다. 전국 성지 순례는 올해로 6회를 맞이했으며, 새로운 성지 순례를 기획하고 있다.

• 평신도 희년 지구별 특강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5월 25일 홍천성당에서 '찾아가는 평신도 희년 특강'을 개최하였다. 평신도 신학자 주원준 박사(토마스 아퀴나스, 한님성서연구소 수석연구원)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평신도'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중심인 중부지구 8개 본당에서 농사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느님 말씀을 들으려는 25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하여 홍천성당 안을 가득 채웠다. 특강에 앞서 평협 총무기획분과장의 〈평신도 희년 수첩〉의 활용방법에 대한 안내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관할지역이 매우 넓은 춘천교구의 6개 지구를 찾아가서, 희년 특강을 개최하여 보다 많은 평신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설정 70주년 & 평신도 희년 기념 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사제 김민희, 회장 김광현)는 4월 28일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평신도 희년 축제'를 개최하였다.

대전교구 설정 70주년과 평신도 희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이 행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주제로 교구 각 본당 회장단과 단체 회장단 300여 명이 참여했다. 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주례로 개회미사를 봉헌한 후 명랑운동회가 이어졌다.

50년 전 주교좌 대흥동성당에서 '한국가톨릭 평신도사도직중앙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한 한국평협과, 올해 평신도 희년을 동시에 기념하며 교구 내 평신도 간의 화합과 친교 도모를 위해 열린 이날 축제는 승부를 떠나 참가자들이 다 함께 교구설정 70주년

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여는 일치의 장이 되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2018 수원교구 상반기 총회장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죽산 영성관에서 각 본당 총회장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8 상반기 총회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서는 강의, 대리구별 분임 토의와 발표, 통합사목에 따른 소공동체 모임에 대한 이해와 적용,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통합사목 전개 방향, 평신도 희년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복음화국장 이근덕 신부는 '교구장 사목교서에 따른 통합사목 전개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복음 선포를 위한 새로운 성찰'의 요청에 따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성찰하고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여 새로운 방법들을 모색해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윤광열 회장은 '평신도 희년'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대리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룹토의와 발표를 가졌다.

파견미사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연수에 참여하고 토의하며 새로운 통합사목에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변화는 시대적 소명임을 생각하고, 초세기 사도들의 행적들과 한국 천주교 도입 시기의 평신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일들에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협, 임원 및 단체장 연수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는 3월 3일 원주교구 가톨릭센터에서 임원 및 단체장 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에서는 2018년 단체장 및 임원 임명장 수여식과 평신도 희년 선포 및 원주교구 평신도 설정 50주년을 행사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검토했다.

교구에서 진행하는 기도학교 설립에 평신도 활동을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과,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순례길 개발 등 많은 안건들을 토의하였다.

원주교구 평신도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역사 사진첩 발간, 젊은이들이 교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회장단 성지순례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담당 총대리 박창균 신부, 회장 한일문, 이하 마산평협) 회장단은 부활절을 맞이하여 4월 1~2일 총대리 신부님을 모시고 경북 문경 진안리(최양업 토마스 신부 선종지) 성지와 마원성지(순교복자 박상근 마티아)를 순례했다. 경건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 정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순교자들의 거룩한 뜻을 되새기는 순례길이 되었다.

● 교구평협 위원 워크숍

마산평협은 4월 21일 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교구평협 위원과 각 지구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의 정체성과 방향성 확보를 위한 교구 단위 평신도 사도직 실행과제를 채택하고, 교구평협과 교구단체의 협조방안 모색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총대리 신부의 인사말로 시작된 워크숍에서 교구평협 위원과 지구회장들은 평신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교령' 학습을 통해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평신도 운동 확산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 교구평협 위원, 상임위원회의

마산평협은 5월 18일 교구청 4층 회의실에서 교구평협 상임위원회 상임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대리 신부님을 모시고 상임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평협 활동에 대한 경과 보고 및 안건 토의가 있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에 대해 박창균 신부님의 강의가 있었다. 강의 후 3개조로 나누어 교령을 바탕으로 평신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토의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2차 평협 상임위원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정현, 이하 안동평협)는 지난 4월 14일 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안건으로 안동평협에서 주관한 한국평협 춘계 상임위원회 준비 평가, 제27회 교구 친교의 날 준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점검이 있었다.

● 제27회 교구 친교의 날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5월 22일 2018년 천주교 안동교구 친교의 날 및 제27회 교구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안동대학교 대운동장에서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교구민 1,200여 명이 참석했다. 교구민들은 테니스, 피구, 족구, 윷놀이, 단체 줄넘기, 지구별 줄다리기, 본당별 응원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 단체평협 연수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 이하 광주평협)는 3월 24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에서 각 본당 사목협의회 및 교구단위 제단체 임원 350여 명과 함께 연수회를 가졌다.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가 '평신도 희년, 어떻게 경축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평신도 희년'에 대한 신동열 회장의 강의가 있었다. 이어 희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개인, 본당, 지구, 교구 차원과 교구 제단체 차원의 활동계획에 대한 분임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가족과 함께 기도시간 갖기, 지구별 희년맞이 한마음 대회, 북한 동포를 위한 통일기금 마련,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기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2기〉

광주평협은 하느님 나라 건설과 교회 발전을 위해 복음화와 평신도 사도직을 충실하게 이끌어 갈 평신도 리더를 양성할 목적으로 평신도 아카데미 〈리더십 과정 제2기〉를 열었다. 4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매주 월요일) '우리 교구의 미래상' 등 10개의 주제로 훌륭한 강사진을 초청하여 40여 명의 수강자와 함께 강의를 듣고 토론,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주차	주 제	강 사
1	개강미사 및 특강	옥현진 주교
2	Open Space "나는 평신도 리더인가?"	강성숙 수녀
3	평신도 사도직 사명	국춘심 수녀
4	교회봉사자의 자세와 섬김의 리더십	최성식 교수
5	본당 공동체성 회복	김인국 신부
6	생명 수호와 생명 나눔	김명섭 신부
7	본당 사목평의회의 역할	김정용 신부
8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	강주석 신부
9	현대사회의 변화와 교회 (청소년 친화적 본당 이루기)	조재연 신부
10	수료미사 및 특강	김희중 대주교

●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38주년 기념미사 및 행사, 전국 교구 평협 회장단 초청

광주평협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제38주년을 맞아 5월 14일 전국 교구 평협 회장단을 광주로 초청하였다. 먼저 광주대교구청 성모동산에서 소개의 시간을 가진 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구 묘역을 방문하여 참배하고 묘역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들으며 민주영령들을 위로하였다. 구 가톨릭센터에 자리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과 금남로, 옛 전남도청 등 5.18 유적지를 찾아보았고,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기념미사를 봉헌한 후 촛불행진과 주먹밥 나눔의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이 인간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잔인한 폭력 속에서 가장 평화스런 공동체를 만들었음을 인식하는 한편,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드러난 인간의 폭력성을 성찰하며 의로움과 참 민주주의를 기억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8 전주교구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5월 22일, 500여 명의 교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를 실시하였다.

요안루갈다길은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한 호남의 순교자 유항검의 생가터인 초남이성지부터 치명자산성지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말한다.

'순교의 땅'이라 불리는 전주에서 한국 천주교 역사 속 가장 빛나는 진주로 추앙받는 동정부부 순교 복자 유중철 요한과 이순이 루갈다의 고매한 정신을 되새기며 온 마음을 다해 완주한 400명의 교우들에게 《루갈다의 옥중일기》를 기념품으로 증정하였다.

●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공개 토론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로마 12,2)라고 요청한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의 사목교서에 따라 교구민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교구 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이야기하는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치명자산 장막성당에서는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주최, 예수회 한국관구의 주관으로 200여 명의 교우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평신도 희년 기념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가톨릭교회가 평신도에게 바라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개 토론회를 통해 시대의 징표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능동적인 평신도상을 찾고,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며 주님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이번 토론회가 한국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복음화의 장을 펼치는 전주평단협 활동의 이론적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제의 날 평협 임원과 사제들 간의 간담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이하 제주평협)는 평신도 희년의 의미를 각인시켜 나가고자 3월 29일 사제의 날을 맞아 성유축성미사를 마치고 그간의 사제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뜻을 담아 간담회를 겸해 오찬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평신도를 대표하여 평협 임원들과 함께한 이 자리에는 두 분 주교님과 교구청 소속 신부님, 수녀님, 은퇴 신부님, 골롬반회 신부님과 수녀님, 그리고 엠마오 연수원 신부님들까지 60명을 초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모처럼 격의 없는 대화가 이뤄지는 등 교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제주 4.3 70주년 참회 미사 및 광화문 문화제 개최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제주지역 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남긴 4.3의 참상을 성찰하고 신학적으로 반성을 하고자 4월 7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김희중 대주교의 주례로 참회미사를 성대히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하여 강우일 주교 등 많은 주교와 성직자들이 함께했으며, 제주교구 평신도 250여 명을 포함한 1,200여 명이 미사에 참례하여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전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국민문화제도 성대히 거행됨으로써 제주 4.3의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 교구 평협 2/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교구 평협에서는 5월 12일 제주교구청 3층 회의실에서 2018년 2/4분기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5월 17일 4.3 평화공원에서 평협 주관으로 치러지는 교구 성모의 밤 행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협의했다. 또한 교구 단위 30개 단체장과의 연석회의 개최 계획 확정과 평신도 희년을 맞아 본당 총회장과 사목회 임원 그리고 교구단위 단체장이 함께하는 워크숍 계획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평협 회보 발간 계획 및 평신도 희년의 삶에 따른 향후 방안 등을 협의했다.

● 2018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 개최

제주교구는 지난 5월 17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평신도 희년에 걸맞게 교구 내 전 신자가 함께하는 성모의 밤 행사를 교구 평협 주관으로 거행했다.

그동안 성모의 밤은 매년 이시돌 삼위일체 야외 대성당에서 개최되었으나, 올해가 제주 4.3 7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일 뿐 아니라 아직도 고통 받는 분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조속하고 완전한 4.3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성모님께 간구하자는 취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4.3 유족들과 함께한 행사에는 3,000여 명 넘는 교우들이 함께했다. 또한 타 교구 및 자매 교구인 일본 교토 교구에서도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내가 기억하는 4.3'에 대한 체험 발표를 통해 4.3의 참상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은 성모의 밤 행사로 치러졌다.

MBW 한국 공동체 추진봉사회

● 2018 MBW 한국 공동체 추진봉사회 양성 연수

MBW 한국 공동체 추진봉사회(회장 이재희 신부)에서는 4월 28~29일 대구 툿찡 베네딕도 수녀원 영성관에서 '형태와 위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양성팀장 박장근 신부의 진행으로 PG(Promoting Group)들이 지닌 현실적 문제들을 성찰하고 각 교구별 주제발표 및 그룹작업을 통하여 PG의 삶에 대해 공부하였다. 또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모둠별 사명선언문을 작성하여 결심을 구체화하였고 파견미사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대구, 광주, 전주, 원주에서 활동하는 PG 26명이 참석하였다. MBW는 공동체를 통하여 실천되는 교회의 영성이며, 사귐의 영성이다.

마리아사업회 (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동북아시아 여자 솔선자 책임자 학교 –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에 전하는 일치'

포콜라레 운동 '동북아시아 지역 여자 솔선자 책임자 학교'가 5월 2~7일 경기도 의왕시 마리아폴리센터에서 열렸다. 솔선자(volunteer)는 자신의 직장과 지역 사회 등 사회생활의 현장에서 포콜라레 운동의 복음적인 일치의 영성을 육화하여 전하고자 하는 이 운동의 성소 중 하나이다.

이번 학교는 동북아 지역에서 포콜라레 운동이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솔선자로서 기여하고, 솔선자들이 서로 간의 일치 안에서 오늘날의 여러 도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학교에는 지난 2014년부터 세계 여자 솔선자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카메룬의 파시앙스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대만, 홍콩 등 총 97명의 동북아

지역 여자 솔선자들이 참석했다.

파시앙스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겨 드려야 한다."며 "포콜라레 운동이 하나의 영혼, 하나의 공동체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회원 모두가 한 가족으로 일치하자."고 당부했다.

참가자 중 한 명은 "동북아의 한중일, 세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라며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

● 2018년 제1차 쪽방촌 무료급식 도시락봉사

전국 가톨릭 경제인 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임인섭 신부)는 지난 3월 3일, 2018년 제1차 '쪽방촌 무료급식 도시락봉사'를 용산구 동자동 5번지 사랑평화의 집에서 진행했다.

한국 평신도 희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봉사는 쪽방촌 불우이웃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회원 17명이 참석하여 밥과 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하여 각 가정마다 안부확인과 함께 배달하였다. 단중독사목위원회 허근 신부님도 함께하여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하였다.

한국 가톨릭 간호사 협회

● 2018년 중앙이사회 갈매못순교성지 성지순례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지난 4월 7일 협회장 박호란 외 18명의 중앙 임원(12명), 원로 고문단(6명)과 함께 충청남도 갈매못순교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성의회관에서 8시에 집합하여 성지에 도착하여 미사를 봉헌하였고, 성지에서 제공한 점심식사 후에 성지에서 운영하는 카페 모여 간단하게 친교의 시간을 나누었다. 이후 성지를 돌아보며 협회와 모든 회원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를 봉헌하였다.

● 2018년 제1차 중앙이사회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3월 15일 서울성모병원에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중앙이사회 신구임원 교체식을 가진 후 4월 7일 갈매못순교성지에서 첫 번째 중앙이사회 회의를 가졌다. 회장 이하 12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협회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역할분담을 하였고, 협회의 2018년 사업 실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순교성지에서 개최된 중앙이사회는 협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참석자들의 헌신적 봉사와 다짐을 봉헌하는 시간이 되었다.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

●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 총회 및 피정세미나 개최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담당사제 박병준 신부, 회장 양승학(호남대))는 지난 3월 2일 예수 그리스도 고난수도회 광주 명상의 집(광주시 일곡동 소재)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는 노성기 신부(광주가톨릭대 총장), 박병준 신부, 최준규 신부 등을 포함한 60여 명의 교수와 그 배우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의안을 협의하고 제14대 신임회장으로 최규하 교수(건국대)를 추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무총장으로는 류판동 교수(서울대)를 선임하였다. 광주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장경식), 대구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이종길), 서울가톨릭교수협의회(회장 최규하)의 연합체로 되어있는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의 총회 및 피정은 순차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최근 사순기간 중에 주로 열리는 한가협 총회에 이어, '바실리우스의 사회교리'라는 주제로 노성기 총장 신부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1박 2일 동안의 피정 세미나에서 박병준 신부는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기'라는 주제로, 홍경자 박사(서강대 철학연구소)는 '철학상담을 통한 치유와 영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피정의 끝 무렵, 사순시기의 절정인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빨마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서는 곧바로 배신해버린 나약한 신앙의 모습을 연출한 은혜로운 미사가 한가협 담당사제 박병준 신부와, 서가협 담당사제 최준규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피정세미나를 통해 한국 가톨릭 교수 협의회는 한국 내 최고의 가톨릭 지성인의 모임이라는 역할과 책임을 다시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한 교수들은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책무를 재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육현장을 통해 참된 신앙인으로서, 또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

●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 2018년 일본 성지순례

한국 가톨릭 병원 협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와 함께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히라도, 소토메, 나가사키, 운젠, 시마바라 지역의 성지순례를 진행하였다.

이 행사에는 총 6개 회원병원(대구파티마병원, 성가롤로병원, 성빈센트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창원파티마병원, 포항성모병원)의 13명의 수녀가 참여하였다.

일본에 최초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한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기념하는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의 무대가 된 '소토메', '드로 신부 기념관', '시츠 성당', '오우라 성당', '우라카미 성당', 나가이 다카시 박사의 생가 '여기당'과 '기념관', '일본 26성인 기념성당'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1945년 8월 원자폭탄의 비극을 넘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나가사키의 '평화공원'과 1990년 화산

폭발로 44명의 사망자를 낸 '시마바라 화산마을'도 탐방하였다.

수많은 수난과 박해의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일본 가톨릭의 고장, 나가사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순례를 통하여 순례객들은 일본 가톨릭 역사의 초대 신앙인들이 겪었던 고난을 묵상하며 일본 천주교회를 이해하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 평신도 희년 맞이 전국성령대회 성황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회장 윤영수, 담당사제 김영철)가 주관한 '2018 성령 쇄신 전국대회'가 지난 4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국대회는 전국 각 교구에서 4,0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평신도 희년 중에 열린 이 행사는 영성신학자이자 인도 빈첸시오회에서 활동 중인 안토니오 파란키말리 신부의 강연으로 절정을 이뤘다. 파란키말리 신부는 강연을 통해 "가톨릭 신자라면 반드시 하느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 영광을 바라고 사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세속에 빠져 사는 가족을 위해 성령생활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파견미사를 주례한 조규만(원주교구장) 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우리 삶에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지만 결과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며 "예수님 부활이라는 희망 안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증거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 2018년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마리애 피정 개최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회장 양지수, 담당사제 김용태 신부)는 5월 11~12일 부산대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정하상바오로 영성관(경남 양산)에서 각 교구 선교회 소속 레지오마리애 단원과 봉사자 등 14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레지오 마리애 피정을 개최하였다.

1박 2일 동안 지역별 활동 보고, 찬미와 친교, 이상일 신부의 강의 등을 통해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섭리와 성모님의 동행에 대해 묵상하였고, 시각장애인 박성태 신부 등 참석한 사제단이 공동 집전한 미사로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피정에서 체험한 은총을 각자의 자리에서 나누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 가톨릭 언론인 협의회

● 가톨릭언론인신앙학교 35기 수료식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회장 김창옥)는 5월 30일 명동대성당 꼬스트홀 소성당에서 가톨릭언론인신앙학교 35기 수료식을 겸한 수료미사를 봉헌하였다. 이날 가톨릭평화신문 이힘 기자를 비롯한 언론과 미디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20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신자들의 신앙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복음전파의 소명을 일깨우기 위해 1999년 시작된 가톨릭언론인신앙학교는 내년에 설립 20주년이 된다. 매년 상하반기 2회 수료생을 배출해왔고, 2016년부터는 하반기에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입문과정 수료 회원들의 재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 제44회 정기총회

한국 가톨릭 여성 단체 협의회(이하 한가협, 회장 김명자, 담당 사제 김정용)는 4월 24~26일 제주교구 성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전국 교구 여성 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개회미사는 제주교구 문창우 주교의 주례로 진행됐다. 이후 황태종 신부(제주교구)가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특강을 했다. 특강에서 황 신부는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며, 그분의 힘이 미치는 하느님의 나라에 살고자 하는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부여 받은 하느님 백성"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아픔인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죄 없이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제주에 많은 사랑을 남기고 하느님 품으로 가신 임피제(2018년 4월 23일 선종) 신부님 영혼을 위해 회원 모두가 소리 맞추어 연도를 바침으로써 그 여느 때의 총회보다 더욱 큰 일치와 연대를 이룬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총회의 폐회미사는 한가협의 담당사제 김정용 신부가 집전하였다. 김 신부는 여러 교구와 본당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며 늘 기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가협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였다. 총회는 참가한 모든 회원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결의문을 다짐하면서 마무리되었다.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2018년 피정 및 제50차 정기총회

2018년도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피정 및 제50차 정기총회가 3월 17~18일 양일간 경북 칠곡군 한티순교성지 피정의 집에서 대구대교구 주관 하에 개최되었다.

대구대교구 이경수 신부의 개회 미사로 시작된 행사는 알찬 특강들과 고백성사로 이어졌고, 주일 아침에는 의사가 바치는 십자가의 길 행사를 시작으로 일정을 이어갔다. 정기총회에서는 의사의 기도를 시작으로 김평만 대표담당사제, 고영진 회장, 윤승규 사무총장, 강성호 감사의 인사와 보고가 있었다. 이어 25차 자그레브 세계가톨릭의사협회 참가,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엄사법 관련 가톨릭의사회의 대응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파견미사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집전으로 이루어졌다. 본 행사에는 7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

• 2018 전국회원교육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는 지난 3월 11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3층에서 2018 전국회원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에는 서울대교구, 인천교구, 대전교구 회원 37명이 참석하였다.

가노장의 정체성에 대한 제1강의를 정수용 신부가 맡았다. 정 신부는 노동 장년회는 가톨릭 액션 단체이며 나의 변화, 내 주변의 변화, 사회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라고 말하고, 팀 회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제2강의는 평신도 동반자 양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강의를 맡은 강영자 수녀는 "평신도 동반자 양성 교육은 동반을 통해 나눈 생활 안에서 성령의 활동을 보거나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면서 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구요비 주교님과 함께하는 미사

한국 가톨릭 노동 장년회는 5월 27일 보문동 노동사목회관 3층에서 구요비 주교를 모시고 미사를 봉헌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회원과, 가톨릭노동청년회 등 100여 명이 함께 모여 뜻깊은 미사를 봉헌하였다.

'다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약속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자기쇄신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웃도 나처럼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할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를 넘어,
교회공동체와 사회공동체로 확산하는 사랑의 선순환 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우리 교회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자기변화운동입니다.

'답게 살겠습니다'는
사회의 아픈 곳을 마주하는 용기, 통렬한 자기반성과 따뜻한 시선으로
'더불어 행복한 생명의 삶'을 추구하는 실천 운동입니다.

'자기 컵은 자기가! 험담보다 칭찬을!'

'답게 살겠습니다'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실천운동입니다.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부터 시작하여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에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지향합니다.

평신도 희년을 맞이하는 평신도들의 다짐

-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확인하며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고백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창세 1,31) 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특별히 태아 생명을 죽이는 낙태는 엄연한 살인죄임을 천명하며 낙태죄 존치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특별히 북한 이탈주민과 이주 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관심을 갖고 배려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가정, 이웃,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하고 화해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와 프란치스코 성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날마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효과적인 복음 선포와 신앙의 성숙을 위해 교회 신문과 잡지, 서적을 구독하며, 교회 방송을 시청하고 후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한국평협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다짐문)

Editor's Letter

평화를 빕니다!

생명이 움트고 나뭇가지가 연둣빛으로 물든 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며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진정 민족의 화해와 협력 시대가 오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북한이 교류하며 평화롭게 지내다가 여건이 되고 뜻이 맞는 날,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면 되리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공존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꿈 말입니다.

"성당에 왜 나오세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요."

《생명과 가정》에 따르면, 천주교에 입교하게 된 동기가 '신자의 권유'에 이어 두 번째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하여'랍니다. 또한 《노인사목 실태 및 욕구 조사》에 따르면, 신앙이 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묻자 89.1%가 '마음의 평화'를 첫 번째로 꼽았답니다. 그만큼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러한 평화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점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선조들이 그러했듯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견결한 신심 안에 참 평화가 있지 않을까요. '천주를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천주교에 나왔다'는 《셩교요리문답》의 첫 대목에서 참 평화의 단초를 봅니다.

이번 호에 실린 초기 신앙선조들의 삶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한 다양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음미하는 가운데, 독자 여러분 모두 마음의 평화를 얻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루카 24,36)이 오늘도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편집장 김문태 힐라리오 올림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catholic.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18년 6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유효현	알렉산델	hyohyeon7013@daum.net
대전평단협	윤정분	아녜스	tjclass@hanmail.net
인천평협	안영근	안토니오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단협	최태용	레오	choy1902@hanmail.net
부산평협	전영주	바오로	libys@hanmail.net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황웅진	헨리코	hwjin70@naver.com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 봉사자 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 가톨릭 시각 장애인 선교 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